

목차

1. 도입	4
01. 공간 연혁	6
02. 한 눈에 보는 2019년 사업	7

2. 사업설명	10
01. 부평문화사랑방의 역할과 성과 다시보기	12
02. 2019년 부평문화사랑방 사업	28
- 상설·기획공연, 특별기획 시리즈	
-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부평문화사랑방 대관	
03. 2019년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 사업	67
- 공연	
-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 대관	

3. 부평문화사랑방 주변 즐기기	70
01. 주민 특성별 투어 코스 제안	72
02. 주변 지도	84

4. 언론보도	86
---------	----

5. 포스터 이미지	94
------------	----

01. 공간 연혁

부평구문화사랑방

2004. 02.	부평문화사랑방 개관, 부평문화원 운영
2008. 09.	부개문화사랑방 개관
2011. 12.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문화사랑방 운영계약 체결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 선정
2015. 01.	부평문화재단 사무국,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문화사랑방 조직통합
2017. 11.	부개문화사랑방 운영 만료

지하철역 문화예술공간

2014. 06.	부평구지하철열린무대 공감, 부평구청역 작은갤러리 설치
2015. 02	부평구축제위원회 지하철역사 문화공간 운영 계약
2017. 12.	부평구축제위원회 지하철역사 문화공간 운영 계약만료
2018. 02.	부평구문화재단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계약
2018. 04.	ART, 메트로 MIX 사업 개시
2018. 12.	부평구문화재단, 인천교통공사 1호선역무안전센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02. 한 눈에 보는 2019년 사업

부평문화사랑방

상설·기획 공연 30개 공연 / 45회 운영

04. 12.(금)	유빌라떼와 떠나는 <음악으로 지구 한 바퀴>
16.(화)~20.(토)	맛깔나는 어린이 국악극 <금다래공> 9회
30.(화)	유래, 상쾌, 통쾌한 그들! <웃음 만발 코믹마술쇼>
05. 09.(목)	다시 읽는 동화, 낭독 연극 시리즈 I <괜찮아, 피노키오>
19.(일)	오정해와 함께하는 키즈국악콘서트 <느닷이 펼쳐는 사물놀이의 진수>
30.(목)	아트 스트릿 댄스 <춤추는 미술관>
06. 07.(금)	오정해와 함께하는 키즈국악콘서트 <동화가 전하는 너랑나랑 아리랑>
16.(일)	로멘티카아르떼의 <꿈꾸는 동심, 선을 흐르는 애니>
28.(금)	매직드로잉가족극 <우기 부기> 2회
07. 04.(목)	어린이 마당놀이 <놀부는 심술대장> 2회
12.(금)	오정해와 함께하는 키즈국악콘서트 <사물놀이와 탈춤, 그리고 사자야 놀자>
16.(화)	클래식 음악회 <뮤직 인사이드 아웃> 2회
30.(화)	오브제 놀이 연극 <무엇이 될까>
08. 16.(금)	우광혁 교수와 함께하는 <세계악기 여행>
22.(목)	다시 읽는 동화, 낭독 연극 시리즈 II <해와 달이 된 오누이>
30.(금)	베이스 함석헌의 가족 콘서트 <당신은 선물입니다>
09. 06.(금)	종이컵 1인 인형극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2회
20.(금)	바로크 악기로 듣는 돈키호테 <엉뚱하면 어때> 2회
27.(금)	홍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클래식> - 클래식과 발레
10. 03.(목)	Funny Band의 <즐거운 클래식> 2회
11.(금)	어린이 연극 <행복한 왕자>
15.(화)	가족연극 <거리 위의 빨간모자>
25.(금)	홍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클래식> - 클래식과 미술

11. 05.(화)	전통음악과 미술의 콜라보 음악극 <호랑이와 꽃감> 2회
19.(화)	홍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클래식> - 클래식과 도시
22.(금)	인문학 렉처콘서트 <프랑스 여행 스케치>
26.(화)	아름다운 클래식 <클라츠 트리오>
12. 06.(금)	홍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클래식> - 클래식과 영화음악
14.(토)	크리스마스 콘서트 <사랑방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20.(금)	다시 읽는 동화, 낭독 연극 시리즈 Ⅲ <스크루지>

부평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워크숍 11개 과정 / 80회 운영

04.06.-06.01.(토)	8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키즈풍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 1기
04.08.-06.10.(월)	8회	그림책으로 우리 아이 마음 들여다보기 <그림책 놀이터>
04.17.-07.03.(금)	10회	과정드라마형 연극놀이 <어디어디 숨었나>
06.08.-07.27.(토)	8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키즈풍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 2기
06.10.-07.29.(월)	8회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창의 예술교육 <몸으로 표현하는 드로잉>
08.01.-08.07.(목-수)	5회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1기
08.03.-09.07.(토)	6회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창의 예술교육 <나도 미디어 아티스트!>
08.08.-08.14.(목-수)	10회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2기 2개 과정
09.04.-10.30.(수)	8회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느린 연극 교실>
09.09.(월)	1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깨비 놀기 좋은 날> 강사 워크숍>
09.21.-11.09.(토)	8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키즈풍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 3기

지하철역 문화예술공간

공연 18회 공연 / 21팀 참여

03. 13.(수)	락드림, 경인고속도로 굴포천
27.(수)	이상한 술집, 씨콤마 첼로 부평구청
04. 10.(수)	아란, 마임오카리나 굴포천
24.(수)	국제문화예술진흥회 부평구청
05. 08.(수)	드림&조이 우쿠렐레 굴포천
22.(수)	마롱, 김주희 부평구청
06. 12.(수)	싱어송라이터 김재훈, 김홍석듀오 굴포천
26.(수)	뮤지컬 러브러브 부평구청
07. 10.(수)	하트리오, 자리 굴포천
24.(수)	장한샘 부평구청
10. 19.(토)	어쿠스틱커 부평구청
26.(토)	샌드재즈듀오 굴포천
11. 02.(토)	어썸가야 부평구청
09.(토)	히미츠 굴포천
16.(토)	샌드재즈듀오 부평구청
23.(토)	어썸가야 굴포천
30.(토)	장한샘 부평구청
12. 07.(토)	클라우드블록 굴포천

2.

사업설명

01. 부평문화사랑방의 역할과 성과 다시보기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사랑방운영팀 팀장 노수진

부평구문화사랑방의 궤적을 훑으며

2004년 2월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당시 주민센터) 3층에 개관한 부평문화사랑방은 올해 16년 차를 맞았다. 2006년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부평기적의도서관 개관과 2010년 부평아트센터 개관보다 앞서 마련되었다. 문화시설이 부족하던 부평에서 구비예산 2억8,500만 원을 들여 최초로 개관한 문화공간이다.¹⁾ 2000년 52.9만 명이던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2005년에는 54.8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 제고를 위해 ‘문화시설을 늘려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문화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결과물이었다. 개관 첫해부터 국악, 클래식, 무용, 풍물,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별하여 월 3회 이상 진행했다. 꾸준한 공연 관람이 가능하도록 금요상설공연을 빠지지 않고 관람한 관객을 대상으로 수료증과 상품을 증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일회성의 공연 관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화예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였다.²⁾ 2008년 9월에는 부개동사무소 위 120석의 부개문화사랑방이 문을 열었다. 뒤이어 청천2동, 부평1동 등 3개 지역에 추가로 사랑방 건립을 계획 중이었다. 부평문화사랑방과 부개문화사랑방, 그리고 계획단계에 있던 공간을 통칭하여 부평구문화사랑방이라 일컬었다.

처음 부평문화사랑방의 운영 주체는 부평문화원이었다. 문화원은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부평의 문화 흐름을 주도하는 기관이었으며, 1998년부터 부평풍물축제가 부평의 대표콘텐츠로 정착한 데에 기여하였다.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한 열망이 응축된 부평풍물축제를 계기로 민·관합동으로 부평문화사랑방이 개관될 수 있었다.

이어 부평문화재단이 부평구문화사랑방을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1년 12월 말이었다. 부평구 문화사랑방과 부평역사박물관의 시설 특성에 따라 각각의 운영 주체였던 재단과 문화원이 교차 변경되어 운영계약을 맺었다. 올해로 재단에서 부평문화사랑방을 운영해온 지 만 8년이 된다.

1) 한국일보 2007.04.15.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인천 부평구 “문화의 향기가 봄내음만큼 진해요”

2) 인천투데이 2004.12.17. ‘금요일마다 터지는 다양한 재미’

개관 당시 공연관람료는 1,500원~2,000원 정도였다. 2004년 영화 티켓 가격이 6,295원 이었던 점을 비교해볼 때 확연히 저렴하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기업 영화관이 영화 판세를 잡은 2015년부터는 사랑방 티켓이 영화 티켓가의 절반 가격 정도인 5,000원에 책정되어 판매되었고, 2018년부터도 영화와 비교하여 58~70%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퀄리티 있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직접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다. 16년의 세월 동안 여러 사랑방 운영진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부평문화사랑방의 공연 인지도가 쌓여왔고, 가성비만을 따져 봐도 사랑방 공연은 매력적이어서 지금도 티켓 오픈 1시간 안에 124석이 매진되는 것은 일상적이다. 이처럼 저렴한 입장료는 지역 ‘문화민주주의’에 훌륭한 보탬이 된다.

한편 세계 물가 비교 지수인 빅맥지수와 비견되는 우리나라 자장면지수로 사랑방 티켓 가격을 비교해왔다. 16년간 자장면 가격이 3,222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는 동안 사랑방 티켓은 1,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 2017년까지 자장면 한 그릇 가격만 했던 사랑방 공연관람비는 2018년을 기점으로 짬뽕 한 그릇의 값을 지불해야함을 알 수 있다.

<2004~2019 부평문화사랑방 티켓가격 비교>

	사랑방 티켓가격	영화 티켓가격	자장면 가격
2004	1,500 ~ 2,000	6,295	3,222
2007	1,500 ~ 3,000	6,172	3,383
2009~2013	3,000	6,970 ~ 7,834	3,974 ~ 4100
2014		8,080	4,417
2015	5,000	주중 9,000 주말 10,000	4,500
2016		주중 10,000 주말 11,000	4,583
2017			4,917
2018	7,000	주중 10,000 주말 12,000	4,833
2019			5,000

출처 : ① 영화 - 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 광복 70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생활물가

② 자장면 -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공개 인천지역 외식비

부평문화사랑방의 위치적 장점

공연과 문화예술교육을 만나볼 수 있는 부평문화사랑방은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다. 같은 건물에는 지하 헬스장, 1층 행정복지센터, 2층 공립작은도서관과 문화강좌실 등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 공연장의 위치로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집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뿐 아니라 문화·건강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다.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와 6,501세대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다.³⁾ 부평문화사랑방 주변의 갈산 2동 아파트단지는 모두 1992년~1993년에 지어졌다.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입주 정착한 10여 년 후인 2004년에서야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평문화사랑방이 들어선 셈이다. 사랑방은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거점,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커뮤니티의 거점 공간이다. 지금은 10분 내외 거리에 1·7호선 지하철 부평구청역과 7호선 굴포천역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한 점은 큰 장점이다.

<부평문화사랑방 및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 주변 지도>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편인 지하철노선과 국도를 중심으로 부평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볼 때, 우측 상단에 위치한 갈산1·2동, 삼산1·2동, 부개3동, 부평4·5동 7개 동의 인구는 부평 인구의

3) 갈산2동행정복지센터 주변에는 ①총 6,501세대의 11개 아파트단지 동남아파트(278세대), 하나아파트(526세대), 갈산태화아파트(390세대), 갈산대동1·2차아파트(1,043세대), 갈산지구두산아파트(574세대), 갈산타운아파트(1,650세대), 동아아파트(280세대), 갈산팬더아파트(280세대), 갈산마을한국아파트(280세대) 갈산주공2단지아파트(1,200세대)와 ②2개 생태전으로 굴포천, 정전천, ③4개 공원으로 대월놀이공원, 굴포공원, 반월놀이공원, 새갈놀이공원, ④4개의 초중고등학교로 갈월·갈산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굴포천을 넘어서는 굴포천먹거리타운과 소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그 앞에는 부평에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카페거리 청리단길이 이어진다.

38.1%를 차지할 만큼 다른 권역에 비해 월등히 수가 많다.⁴⁾ 인구밀도가 높은 연유로 갈산2동에서 문화 사랑방의 첫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갈산2동과 부개동에 이어 2010년 부평1동 주민센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문화사랑방이 공사 진행 중 갑작스럽게 구 재정난으로 무산되면서 부평1동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부평아트센터 건립에 따라 문화 사랑방 소공연장의 대체재가 생겼고, 주민센터에 공연중심의 공간을 건립하는 것보다 동아리 활동과 공연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⁵⁾

문화공간,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편하게 걸어갈 만한 위치에 있다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가 수월하다. 우수한 공연장과 갤러리, 세미나실, 연습실 등이 다양하게 갖춰진 부평아트센터가 부평의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해 부평의 문화수요자들이 십정동에 있는 부평아트센터까지 일상적으로 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부평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될 당시에도 위치를 놓고 전문 자문가들이 이러한 점을 거론한 바 있다.

2016년부터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거점 구간을 ①백운역에 위치한 부평아트센터, 신촌(부평3동), 부평공원, ②부평역의 부평지하상가, 부평문화의거리, ③부평구청역의 굴포천먹거리타운으로 정하여 음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굴포천먹거리타운에 인접해 있는 부평문화사랑방이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거점 구간의 중심점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사랑방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최소 11건에서 30건가량의 음악극, 퓨전국악, 클래식, 어쿠스틱 등의 다양한 음악공연을 선보여 왔기 때문이다. 만약 BP음악산업센터를 사랑방으로 지정하고, 부평생활문화센터가 지하부터 2층까지 전 층을 활용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시너지를 발휘했을 것이다.

<2016~2019 부평문화사랑방·지하철역 문화예술공간 장르별 음악공연 횟수>

(단위 : 회)

		음악극	퓨전 국악	전통 풍물	클래식	재즈	어쿠스틱 밴드·인디	퓨전· 월드뮤직	기타 (남미,팝페라)	총계 (전체공연)
2016		3	3	1	6	1	1	1		16(30)
2017		1	2		5	1		2	1	12(32)
2018	사랑방	5	5		14			2	1	27(40)
	지하철		2		6		3	1	5	17(18)
2019	사랑방	13	3		12	1		1		30(45)
	지하철		3		2	4	9	1	5	24(24)
합계		22	18	1	45	7	13	8	12	126(189)

4) 부평구문화재단, 2017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p.48 2017년 기준 부평전체 인구수 565,972명, 인구밀도 17686.63, 세대 217,217, 구성비 100%와 비교했을 때, 부평문화사랑방이 위치한 권역의 인구수는 216,080명, 인구밀도 27491.09, 세대 82,045, 구성비 38.1%를 차지하여 주민 다수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경기일보 2010.11.01. “부평1동 문화사랑방’ 없던 일로”

부평구는 2018년부터 굴포천먹거리타운을 포함하여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사랑방과 도보로 5분 거리의 인접한 곳에 부평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생겨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도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그동안 부평구의 굼직한 사업과 부평문화사랑방이 연계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 의아하다. 부평문화사랑방은 문화도시 계획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구체화되기 훨씬 전, 부평구 문화정책 실현단계에서 최초로 개관한 문화공간이라는 점이다. 음악·융합도시 사업을 구체시킬 때, 부평 문화의 흐름과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공간 자원의 위치적 특색을 좀 더 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먹거리와 자연생태천 주변 놀이터에 크고 작은 축제 행사를 열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좋지만 한 달에 3회 이상의 공연과 주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는 매력적인 사랑방을 도시계획의 주요 문화거점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문화적 장소성이 깃들어 있고, 한걸음에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탁월한 위치에 있는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어떠한 사업도 시도할 수 있다. 청리단길에 형성되는 카페거리 상권과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문화공간과 연결하여 함께 발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예술가와 사랑방 주변에 움트고 있는 신생 문화공간을 연계하는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지역 예술·음악 활동 센터로 만들거나, 도시재생의 근간이 되는 문화공동체 사업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도 있다.

<2016 실버밴드 커뮤니티활동 모습>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 문화사랑방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이하 사랑방 조례)에 따르면 설립 당시 시설의 명칭을 문화관람실, 대기실, 다목적실 등으로 정하였고, 문화관람실에 180여 석의 객석과 공연설비를 갖춰놓았다. 실제로는 가장 주된 사업이 공연이었으나, 설립 당시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 사업은 ①문화예술 행사 개최 ②문화환경 체험 프로그램 ③문화강좌 프로그램 ④주민들의 문화 동아리 및 동호인회 운영 및 지원으로 여전히 조례에 남아있다. 초창기 조례에서 구상했던 사업 범위를 살펴봤을 때, 부평문화사랑방은 이름대로 동네사랑방으로 기능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전신이라 여겨지며, 실제로 부평구 전역 5개 문화사랑방 설립 후에 적극적인 문화동아리 지원사업과 네트워킹이 기대되기도 했다.⁶⁾

2012년 문화재단이 사랑방을 위탁 운영하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다행히 자료가 남아있어 커뮤니티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시기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천문화재단 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사업을 지원받게 되어 ‘극단 MIR레퍼토리’가 <예술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예술가를 초청하여 무대 위에서 짧은 공연과 토크쇼를 선보이고, 이후 와인 파티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인천에서 굼직하게 활동하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의 교류가 사랑방에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2013년 교육프로그램 <힐링무비카페>를 통해서도 영화관람 이후 영화에 관한 대화를 이어나가던 수강자들이 과정 이후에도 자유로운 동호회 활동을 원하던 차에 인천영상위원회 동아리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아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포럼연극>은 가족소통, 학교폭력,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주요테마로 연극무대에서 관객들과 의견을 함께 나눠보는 관객참여 공연을 진행했다. 지역관계기관을 통해 해당 주제와 맞는 관객을 초청하여 공동주관으로 진행하면서 커뮤니티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시도할 수 있었다. 2016년 커뮤니티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된 <실버밴드>와 <영화多방>은 성인과 노년층의 생활문화예술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례이다.

올해는 소극적인 범위에서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사업을 지원했다. 갈월초등학교가 주축이 되어 인근 공공시설인 부평문화사랑방, 기후누리체험관, 부평문화원, 북구도서관의 협조를 끌어내 지역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사랑방에서는 갈월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을 위한 오전 10시 공연을 별도로 배정하여 학생들이 지역 문화공간인 사랑방을 방문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학생들의 동아리발표 무대를 사랑방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을연계학교 사업과 같은 지역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부평구문화재단과 사랑방이 주축이 되어 앞으로도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범호, 2008.12.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인천문화재단 격월간 문화비평지 플랫폼 통권 12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깨비 놀기 좋은 날> 교육사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서의 문화사랑방

요즘 국내외에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츠타야 서점과 같이 복합적인 서비스와 충족감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의 성공사례가 잇따르고, 모바일 기술발달로 더 이상 특정 공간이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에 따른 공간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오래전부터 문화예술교육과 각종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사랑방 무대 공간은 여러 가지 중복된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없어 공연무대와 고객 대기공간으로 활용되는 복도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 협소한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는 공연장에서의 교육과정은 사랑방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재탄생되었다. 사랑방 조례에서 시설 명칭을 공연장이 아닌 문화관람실로 명명한 것도 공연장 기능을 비롯해 시설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 의미로 보인다.

공연기획과 기술감독, 회계인력으로 조직되어 있던 사랑방운영팀에 2013년 문화예술교육 담당 정규 인력이 배치되면서 본격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도 하게 되었다. 이미 문화예술융합교육의 개념이 술하게 논의되어 많은 예술강사와 문화 관계자들이 창의 통섭 프로그램을 추구하지만, 사랑방은 무대를 포함한 교육 공간의 특성상 어떠한 장르의 교육을 시도 해도 음향·조명·스크린 장비와 무대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결합과 접목을 하게 된다.

일례로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키즈퓨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은 과정 바탕에 국악이 깔려있지만, 연극(관람, 역할표현), 미술(공예), 음악(국악, EDM, 풍물), 전통(놀이, 춤) 등 복합적인 장르를 선보인다. 교육이 시작되면 선생님은 전통 가락으로 아이들을 맞으며 인사 나누고, 곧바로 배우로 변한 선생님들의 도깨비 스토리의 공연을 감상한다. 연극에서 다뤄진 도깨비 노래와 춤을 배우고, 극에서 다뤄진 내용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와 연결된 만들기 수업이 진행된다. 1회에 1가지씩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 차수에 주어진 2시간 30분 동안 충실하고 짜임새 있게 과정이 진행된다. 결과물로 아이들이 직접 가사를 지은 도깨비 노래를 불러 녹음하고, 음원으로 제작하여 발표한다. 전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창작 음원과 함께 최종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전달한다. 1~2학년 초등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으로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교육이 토요일마다 사랑방에서 무료로 이루어졌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좋은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정원의 4배수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인기리에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부평문화사랑방을 근방에 거주하는 갈산동, 부평동, 삼산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이 있다. 자칫 구민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일부에게 편향된 문화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무료교육 신청이나 공연 예매가 과열된 가운데 사랑방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이 행사정보를 먼저 알고 신청과정에도 재빠르게 접근하여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거나 개발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2019년 사랑방 교육 참여자 거주지 분포에 따르면⁷⁾ 부평구민이 111명(74%)으로 가장 많지만, 인접해 있는 부천시(8명, 5.33%)뿐만 아니라 인천 남동구(12명, 8%), 서구(7명, 4.67%), 계양구(6명, 4%) 거주자들도 확인이 된다. 또한 부평구 주민 중 갈산동 33명(29.73%) > 부개동 19명(17.12%) > 부평동, 산곡동 각 17명(15.32%) > 삼산동 16명(14.41%)의 고른 분포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십정동과 청천동 거주자들은 부평아트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와 인접하여 그곳에서 진행되는 문화 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신동은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다.

부평문화사랑방의 교육은 평균 8회차로 진행되고, 교육대상은 주로 유아, 초등학생이므로 동행하는 학부모들의 수까지 고려하면 적은 수라고 볼 수 없다. 물론 교육참가자를 부평문화사랑방 이용자 전부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부평문화사랑방을 부평구민들이 고루 찾고 있다고 전제할 수도 있다.

7) 사랑방 공연전산예매는 인터파크에 위탁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파크를 비롯한 재단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실제 사랑방 공연관람객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2019 부평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거주지 분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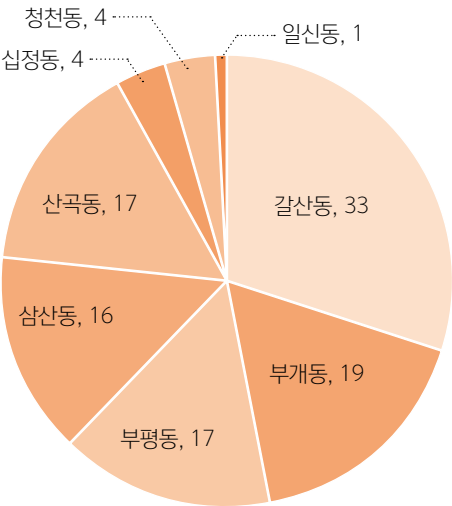
시도	구	참여자수	계	백분율
인천시	부평구	111	140	75
	남동구	12		8
	서구	7		4.67
	계양구	6		4
	미추홀구	2		1.33
	연수구	2		1.33
경기도	김포시	1	9	0.67
	부천시	8		5.33
서울시	구로구	1	1	0.67
합계	9개 시·구	150		100

<2019 부평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거주지 분포 - 부평구 중심>

(단위 : 명, %)

구	동	참여자수	백분율
부평구	갈산동	33	29.73
	부개동	19	17.12
	부평동	17	15.32
	삼산동	16	14.41
	산곡동	17	15.32
	십정동	4	3.6
	청천동	4	3.6
	일신동	1	0.9
합계	8개 동	111	100

(단위 : 명)



2019 매직 드로잉쇼 <우기 부기> 공연사진



부평 공공에서 만든 손꼽히는 소공연장, 문화사랑방

부평문화사랑방의 주요 사업은 역시 공연이다. 사랑방운영팀의 예산을 ①행정운영경비, ②공연, ③문화 예술교육, ④공모(꿈다락)사업, ⑤커뮤니티사업, ⑥지하철 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사업으로 나눠 봤을 때 공연사업의 예산이 팀 전체 예산의 45~67%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았으며, 사랑방을 개관했을 당시의 보도 기사나 사랑방 자료집에도 부평문화사랑방을 소공연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자료가 남아있는 2007~2008년 관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80% 이상이 여성으로 30~40대가 50%를 넘는다. 이들이 문화사랑방의 공연환경에서 보람하기 바라는 부분으로 유아 놀이방 등 어린이 시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50% 이상이 꼽았다. 30~40대 여성이 아이들과 동행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비율이 초창기부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대상층을 아우를 수 있는 실험적이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것도 중요 하지만, 주요 타깃을 정하여 공연과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2015년 문화재단 사무국과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문화사랑방이 조직통합을 거치면서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별 컨셉을 논의 할 때, 주 이용객의 특성에 따라 사랑방을 어린이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어린이 공연장으로 변모하기 위한 시설 리모델링을 비롯한 예산이 충당되지 못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는 못 했으나, 이후 가족 공연, 어린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주축이 된 측면이 있다.

<2014~2020 사랑방운영팀 예산 비율>

문화예술교육							
행정경비	공연	공모사업 (꿈다락)		커뮤니티 사업	지하철역 공간사업	비고	
2014	16.76	67.26	9.28	6.7	-	-	부평·부개 문화사랑방 운영
			15.98				
2015	30.51	55	8.25	6.24	-	-	
			14.49				
2016	38.43	44.9	7.53	5.34	3.8	-	
			12.86				
2017	31.39	58.45	10.16	-	-	-	
2018	25.09	45.49	8.39	6.01	-	15.03	부평문화사랑방 · 지하철역 문화예술공간 운영
			14.4				
2019	32.9	45.37	8.04	7.01	-	6.68	
			15.05				
2020	40.04	47.64	6.75	미정	-	5.57	예정

부평문화사랑방은 이미 공연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 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2017년부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조건으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제출이 추가되면서 공연장에 걸맞은 조건을 갖추고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하지만 사랑방 담당자 변경과 예산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공연장 등록이 미뤄졌고, 이후 팀의 인력부족에 따라 연간 공연이 90일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⁸⁾ 「공연법」에서 정의하는 공연장 조건에 사랑방은 공연장 조건에 사랑방은 부합되지 않는다.

2017년 말, 부개문화사랑방이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로 용도 전환되기 전까지 사랑방운영팀 4명은 거리가 떨어진 부평문화사랑방, 부개문화사랑방 2개 공간을 운영하고, 소공연장의 특성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 외에 무대기술과 시설운영, 회계 업무가 더해지므로 소수의 팀 인원으로는 90일 이상의 공연일자를 채우기 어려웠다. 또한 공연무대를 5회차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연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사랑방이 진행해온 사업의 구성면에서도 온전히 공연에 집중하는 공연장으로 운영하는 하는 것이 적합한가도 짚어볼 문제다.

8) 「공연법」 제2조, 제1조의2에 따른 공연장의 정의는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부평문화사랑방은 2017년 자체 기획·상설공연 32일, 대관 48건으로 80일, 2018년 기획·상설공연 32일, 대관 75일로 107일간 공연이 올려졌다. 또한 2019년 직원 퇴사에 따른 인력부족에 따라 기획·상설공연 34일, 대관 34일로 62일가량 공연이 진행되었다. 90일 공연일을 넘길 수 있었던 2018년은 팀원이 5명이었다.

공공시설 문화사랑방의 다음 스텝

내년에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된 사랑방 시설을 보완하는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다. 가족단위의 공연 프로그램과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공간답게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 벽식 구조로 되어 있어 공간구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어렵고 전기시설 같은 기초 설비 등을 고쳐야 하는 까닭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여건이나마 조금씩 바뀌어가는 수밖에 없다. 문화관람실(공연장)을 대체하여 교육이나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이 갖춰질 수 있도록 상주단체가 사용했던 다목적실을 작은 교육장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공연 대기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복도에 WiFi를 설치하고 도서 비치 구간을 확대하여 도서관 분위기가 나도록 만들 수 있다. 사랑방 아래층에 있는 공공작은도서관인 갈산밀알도서관 또는 재단이 운영하는 갈산도서관과 연계하여 시·주·제별 도서 큐레이션을 시도해도 좋다.

이러한 결모양을 보완하고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방 사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부평 문화정책의 초점이 부평아트센터 건립에 이어 부평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넘어가고, 문화도시 지정과 도시재생 이슈에 집중하게 되면서 부평문화사랑방의 인력, 예산, 노후화되는 시설·장비, 신규 사업 개발 등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은 차순위로 밀려 있다. 공연장으로서 사랑방의 여러 운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랑방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재단 내외부의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정책政策은 여러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策이다. 신중을 핑계로 시간을 흘려보내며 뒤처지기보다는 비전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

공간의 정체성은 공간을 둘러싼 여러 사람의 경험과 구체적인 행위가 쌓여 만들어진다. 사랑방을 향한 정책가의 의도, 운영자들의 바람, 사랑방 이용자들의 인식, 주변 거주자들의 욕구가 서로 다른 이상적인 이미지로 점철될 수 있고 그조차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다. 재단이 제시하는 비전대로 사랑방의 공간 운영 방식과 사업 방향이 정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점은 공공 공간인 사랑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공유되어야 하는 점이다. 말은 쉽지만 실현하기 어렵다. 공연이나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고정시간 외에 일반 주민들이 도서관이나 카페처럼 아무 때나 사랑방을 방문하지 않기도 하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하거나 소비하는 사람에 머무를 뿐, 공간의 생산자나 주인만큼 친밀함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사랑방 운영에 관한 재단 내부의 논의와 숙고가 이루어지는 과정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019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 어썸가야 공연사진>



덧붙여, 지하철역사 문화예술 공간

2014년 상설공연무대와 작은갤러리로 이루어진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이 설치되었다. 2015년부터 부평구축제위원회가 대관운동을 맡았고, 정기·특별공연을 진행하였다. 2018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 사랑방운영팀에서 이 공간들을 위탁 운영하게 되어 <ART, 메트로 MIX>라는 사업명을 붙여 대관과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⁹⁾

공공공간의 조성 목적이 모든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우문이긴 하지만, 얼마 전 부평구청역사 내 상설 공연장 무대와 관련하여 기사화된 글을 읽고 되짚어보는 질문이었다.¹⁰⁾

지하철역을 거쳐 가는 주민들은 천차만별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인 지하철 이용, 즉 이동에 있겠지만 공공공간인 지하철역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다른 의미와 관점을 갖게 한다.

9) 공교롭게도 2017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에서 건강한 지역예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과 연계한 소규모 공공공간에 소규모 관객을 수용하는 1평 공연장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제안된바 있다. 유사사례로는 서울 지하철 예술무대 <서울 메트로 아티스트>가 제시되었다.

10) 중부일보 2019.10.01. '관리부실'... 낮잠카페로 전락한 부평구청역 상설공연장

사랑방운영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하철역사 문화예술 공간 중 부평구청역 상설공연장 무대에서는 낮이나 저녁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쉬다 간다. 무대에 있는 콘센트에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게 무대 배경을 바라보고 드러누워 있기도 한다. 그 옆에는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년여성분들이 가방에서 싸 온 음식을 무대 위에 꺼내 펼쳐놓고 나눠 먹다 일어선다. 마치 지상의 푸른 공원에서 산책을 마친 이들이 정자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모습 같다.

무대 뒤 한 편에 '무더위 쉼터(COOLING CENTER)'라는 부평구청역에서 표기한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다. 부평구청역의 무대는 사람들에게 의해 쉼터로 사용되고 있다. 무대 앞에 늘어서 있는 기다란 의자에서도 사람들은 누워있다. 부평구청역 무대 주변에 이러한 문화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현상이다.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분위기는 공연을 진행하는 중에도 여전하다.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아티스트의 열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벤치에 누워 공연이 끝날 때까지 한 시간을 넘게 눈을 감은 채 자리를 지킨 사람도 있다. 이 시점에 공연스텝은 잠자는 그 사람을 깨워 일으켜 세워야 했을까?

<무더위 쉼터 안내 스티커,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민 모습>



부평구문화재단 사랑방운영팀은 부평구청역의 상설공연장 무대와 작은갤러리, 굴포천역의 상설공연장 세 군데를 운영 관리한다. 운영방식은 공연과 전시를 원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공간대관을 하고, 공모나 기획을 통해 선별하여 직접 음악공연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 외 청소나 공간의 실제적인 관리는 지하철공사가 한다. 2018년 인천교통공사 1호선역무안전센터와는 업무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랑방운영팀에서 공연신청자와 대관일정을 조율한 후 정리된 일정표를 지하철공사에 전달하면 현장에 있는 공사 직원이 매번 공연 진행을 확인한다. 이러한 역할 구분이 관리 책임의 분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시로 벌어지는 공연에 관한 피드백을 공사 측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사랑방

운영팀에서 지하철 공연을 진행할 때 이용객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잦은 공연 소음에 노출되는 공사 직원들의 피로함을 덜기 위해 고민하기도 한다.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은 음악공연을 비롯한 문화예술이 바탕이 된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과정으로, 절제된 질서를 우선하던 공공공간과 이동에 바쁜 주민들의 일상에 균열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문화 터미널’ 정책에서도 볼 수 있다. 터미널 같은 사람들의 동선이 모이고 흩어지는 장소에 TV, 식당, 전시 등의 문화 활동 공간이 잇달아 있게 하고, 자연스러운 마주침 뒤에 그 공간이 활용되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보통과 다른 사소한 차이의 문화적 경험들로 일상적인 문화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지속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단편적인 일회성의 만남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거나 공연무대 앞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적극성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군집을 이룬 곳에 메가이벤트를 벌이는 것과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은 사업의 방향과 의도부터 달라야 한다. 개인의 기억과 추억으로 남는 문화적 체험은 반복되어야 하며, 경험의 임팩트보다는 빈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사 문화예술 공간은 집합적이지 않아도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나 일상의 친근한 공간에서도 문화 누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미굴처럼 엮인 있는 지하철 마디마디에 씬과 음악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아마추어 아티스트에게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실험무대가 되고, 자신의 예술 행위와 작품의 반응을 가까이서 바로 지켜볼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가 축적되어 부평의 거리예술문화와 맞닿는 상상을 해본다. 하늘이 트여있고 젊은 분위기가 감도는 부평문화의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것도 좋지만, 오로지 공연자의 소리 울림으로 채워지는 지하철 문화예술공간에서 훨씬 잘 갖춰진 공연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올해도 공연을 진행하면서 몇 번을 당황한 점은 관객이 모이지 않는 것이었다. 많으면 50명 남짓의 인원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무대 주변 가까이 맴돌다 간다. 특히 무대의 모습이 갖춰진 굴포천역 무대 앞 의자에는 사람들이 앉기를 꺼리는 느낌이다. 공연이 한창일 때도 먼발치에서 지켜보다가 자리를 뜨거나, 저만치 떨어진 의자에 앉아 공연을 관람한다. 무대 앞에 깔린 의자에 앉는 관객이 되기에는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 역시 굴포천역의 분위기이다. 오히려 기동으로 인해 무대 시야가 가려지는 부평구청역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5년간의 고정된 자리에서 지하철 공연을 진행해왔으나 버스킹 관람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는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 지하철 공연도 마찬가지 분위기이다.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 공연만 해도 고정 관객이 두 세분 생겼다. 홍보물을 확인하고 정해진 날짜를 체크하여 공연을 보러 나오는 것이다.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좋은 공연을 보고 간다며 기꺼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주민도 계시다. 이러한 소소한 반응이 붓물 터지듯 임계점을 넘어 거리예술문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느리더라도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랑방운영팀의 사업을 훑어봤다. 문화사업본부에서 사랑방운영팀은 공간 운영으로 인해 사무공간부터 별도로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도 작다. 지역에서나 재단 조직 내부에서 화려한 사업이나 특별한 사례로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도 사랑방과 지하철 나름의 문화공간과 사업의 의미를 새긴다. 더불어 해를 거듭할 때마다 사랑방의 가치와 역할이 새로이 기록되기 바란다.

참고자료

부평구문화재단, 2012~2018 부평문화사랑방 자료집

부평구문화재단, 2017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부평문화원, 2004, 2007, 2008 부평문화사랑방 자료집

경기일보 2010.11.01. “부평1동 문화사랑방’ 없던 일로’

이범호 2008.12.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인천문화재단 격월간 문화비평지 플랫폼 통권 12

인천투데이 2004.12.17. ‘금요일마다 터지는 다양한 재미’

중부일보 2019.10.01. ‘관리부실’... 낮잠카페로 전락한 부평구청역 상설공연장

한국일보 2007.04.15.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인천 부평구 “문화의 향기가 봄내음만큼 진해요”’

02. 2019년 부평문화사랑방 사업

상설·기획공연

관람료 전석 7,000원

유빌라떼와 떠나는 음악으로 지구 한 바퀴

☆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음악으로 지구 한 바퀴>는 교과서에 소개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다양한 나라의 클래식 곡들을 앙상블 유빌라떼의 독특한 악기 구성과 특유의 색을 담아낸 연주로 선보이는 음악회이다. 친절한 해설, 음악 퀴즈와 만화영화 주제가 연주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오스트리아 - 슈트라우스 봄의 왈츠, 도레미송 / 독일 - 베토벤 운명 교향곡 1악장 / 프랑스 - 클로드 볼링 아일랜드의 여인 / 핀란드 - 시벨리우스 핀란드아 / 미국 - 디즈니 OST 메들리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거북, 코끼리, 수족관, 숲속의 뼈꼭새, 백조, 피날레

- 일시 4. 12.(금) 19:30
- 관람연령 36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바이올린 이서정, 첼로 박해덕, 플루트 이지혜, 클라리넷 김대건, 피아노 김진석, 김소령
- 스태프 기획총괄 정유진



맛깔나는 어린이 국악극 금다래궁

☆
금다래 할아버지와
동물 친구들의
흥겨운 국악 한 마당

황해도 황주 지방에서 전해오는 서도민요 '금다래궁'의 가사를 모티브로 만든 어린이 국악극 <금다래궁>은 아이들이 국악을 쉽게 따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다.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에 서도 민요, 사물놀이, 사자탈춤과 친절한 해설을 더한 체험형 공연으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금다래 할아버지의 맛깔나는 금다래궁 노래와 동물 친구들의 신나는 악기 연주가 돋보인다.

● 줄거리

손녀 분이를 찾고 있는 금다래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은 사물 요정과 동물친구들이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한다. 그러나 동물 친구들의 도움에도 분이를 찾지 못하자 동물의 왕인 사자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드디어 사자의 도움으로 분이를 찾고, 행복한 할아버지와 친구들은 하나 되어 흥겨운 축하 잔치를 벌인다.

- 일시 4. 16.(화) - 20.(토) 9회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금다래 할아버지 유상호, 팽과리(호랑이) 김호석, 장구(기린) 오승재, 북(팬더곰) 정하규, 버나·징(얼룩말) 최병진, 피아노(다람쥐) 김지원, 피리·태평소(여우) 김현주, 사자탈 김재민, 노동현, 해설 신희숙
- 스태프 예술감독 서광일, 연출 김병훈, 음향·조명감독 맹운영, 해설 신희숙



유쾌, 상쾌, 통쾌한 그들! 웃음 만발 코믹마술쇼



코미디와 마술의
Fun한 콜라보

KBS 공채 출신 개그맨 김재욱, 정범균과 실력과 마술사 김민형의 유쾌한 만남으로 웃음 유발 코미디 마술쇼가 완성되었다. 재미와 감동의 메시지를 함께 담은 <웃음 만발 코믹 마술쇼>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연이다.

● 줄거리

신입 경찰 - 사건 현장, 신입 경찰의 상태가 이상하다? 제대로 수사 하라는 선배와 자꾸 산으로 가는 신입. 과연 이들의 수사는 어떻게 될까? / 경찰과 마술사 - 마술공연 도중 관객의 돈을 가지고 마술사가 사라졌다. 선배 경찰과 어리버리 후배 경찰, 그들을 피해 달아나는 마술사의 요절복통 사기극 / 돌아온 프레디 머큐리 -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관객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겠다고던 프레디 머큐리가 무대 위에서 선물을 꺼내는데 그 선물은 과연? / 비밀을 밝혀라 - 다큐 '비밀을 밝혀라'의 해설자는 마술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해설하고 그 비밀을 밝혀낸다. 그 끝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 마술? 사기? - 마술사를 사기꾼으로 검거하려는 경찰. 마술은 사기가 아닌 꿈과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마술사. 과연 경찰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 일시 4. 30.(화) 19:30
- 관람연령 5세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개그맨 김재욱, 정범균, 마술사 김민형
- 스태프 음향·조명 이종흠, 무대스텝 문거성



다시 읽는 동화, 낭독 연극 시리즈 I 괜찮아, 피노키오



실수투성이 피노키오의
좌충우돌 성장기

2019 부평문화사랑방 기획공연 첫 번째인 낭독연극 시리즈 I <괜찮아, 피노키오>는 1883년 집필된 원작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 중 교훈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부분을 발췌해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특히 구연동화와 연극의 중간 형태인 '입체적인 낭독극'으로 선보이며, 실감나는 연기, 기발한 의상과 소품,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는 악기와 폴리 사운드 등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줄거리

외로운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아들로 삼는다.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에 기적 일어나 피노키오는 생명을 얻게 된다. 피노키오는 어른들의 충고와 조언은 잘 듣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 좌충우돌 실수만 하는 피노키오는 별별 일을 다 겪고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던 중 제페토 할아버지가 바다에 빠진 걸 피노키오가 발견하고, 할아버지를 구하려 바다로 뛰어들어 두 사람은 상어 뱃속에서 만나게 된다.

- 일시 5. 9.(목) 19:30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피노키오 홍지인, 제페토 양승한, 1인 다역 신소영, 조부현, 이동건, 김민혜
- 스태프 원작 카를로 콜로디 '피노키오의 모험', 각색·연출 윤사비나, 영상 이의행, 조명 최란, 제작감독 임밀



아트 스트리트 댄스 춤추는 미술관

☆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무는
환상적인 퍼포먼스

<춤추는 미술관>은 수준 높은 스트리트 댄스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쓴 '애니메이션 크루'의 대표작이다. 미술 작품들은 댄서들의 화려한 몸짓으로 깨어나 관객들의 눈 앞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나는 비트와 테크닉, 의미 있는 메시지와 재미를 모두 담은 공연을 선보인다.

● 프로그램

Tichet Box - '춤추는 미술관'으로 입장하는 관객. 설명과 동시에 작품들에 생명이 깃들이 시작한다. / Music Box - 골동품 가게의 오르골 상자가 선사하는 추억의 향연. 익숙한 멜로디와 신나는 비트, 잘 차려입은 댄서들은 과거와 미래를 담은 인간의 꿈을 형상화 한다. / Gallery : 'Dance' - 사람이 아닌 듯한 움직임. 현대사회의 비 인간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 Divergence - 현실과 상상의 경계의 소용돌이. 두 세계의 경계를 없애고 하나로 융합한다. / Ending -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즐겁게 관객들과 하나 되는 춤사위를 벌인다.

- 일시 5. 30.(목) 19:30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팝핀 권수민, 김우중, 백승주, 나광수, 한주희, 비보이 범상길, 비트박스 한요한
- 스태프 연출 정일주



로멘티카아르페의 꿈꾸는 동심, 선율 흐르는 애니

☆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로 듣는
만화 주제곡

<꿈꾸는 동심, 선율 흐르는 애니>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담은 작품이다. 우리를 감동시켰던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을 수준 높은 피아노 3중주로 감상하고 해설도 함께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다. 감미로운 연주를 감상하다보면 익숙한 멜로디가 어느새 우리를 만화 속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어른들은 추억을 회상하고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온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볼 수 있다.

● 프로그램

미녀와 야수 - Beauty and the Beast / 인어공주 - Under the Sea / 하울의 움직이는 성 - 인생의 회전목마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언제나 몇 번이라도 / 천공의 성 라퓨타 - Innocent / 이웃집 토토로 - Ending Theme Song

- 일시 6. 16.(일) 16:00
- 관람연령 36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바이올린 송정민, 첼로 정지은, 피아노 박다숨, 해설 김세휘



매직드로잉가죽극 우기 부기

☆
낙서들이
살아 움직이는
마법같은 공연

2018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Asian Arts Award 'BEST COMEDY'를 수상하고 영국 유력 일간지 The Guardian에서 선정한 'BEST SHOW' <우기 부기>는 2019년 캐나다, 체코, 터키 등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작으로 참가하여 세계인에게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두 개구쟁이들이 거대한 화이트보드 벽에 잉크 방울을 튀기며 그려낸 동물들이 프로젝터 영상과 만나 움직인다. <우기 부기>의 낙서들이 하나의 그림이 되는가 싶다가도 금세 지워지고, 다시 채워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으로 변해간다. 통통 튀는 상상력과 보드마카로 무장한 두 개구쟁이들이 신나는 모험 속으로 어린이들을 초대한다.

● 줄거리

호기심 많은 두 개구쟁이는 까만 펜만 있으면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 동그라미를 그리면 축구공이 나오고 얼굴로 바뀌고 알이 굴러가는 상상이 실현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알에서 작은 거북이가 나와 두 친구의 마음을 훔치고 떠나버렸다. 거북이가 남긴 파도 소리에 우기와 부기는 생애 처음으로 바다를 향해 모험을 떠나기 시작한다.

- 일시 6. 28.(금) 10:00 19:30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우기 김승환, 부기 이희애, 악사 손은재, 영상 김재웅
- 스태프 크루 성산희, 기획 김휘연, 조명오퍼레이터 김동현



어린이 마당놀이 놀부는 심술대장

☆
즐거워 놀이와
신나는 노래가 가득한
흥부놀부 이야기

어린이 마당놀이 <놀부는 심술대장>은 판소리 '흥부가' 속의 심술대목을 네가지 에피소드로 재구성하여 소리랑 만의 색깔로 풀어낸 작품이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흥부놀부 이야기를 배우들이 유쾌한 연기로 풀어내고, 공연 내내 펼쳐지는 신나는 노래들이 귀를 사로잡는다. 함께 노래도 부르고 박도 터트리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참여형 마당놀이극을 통해 아이들이 국악을 즐겁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줄거리

옛날 심술 많은 놀부와 놀부에게 늘 당하기만 하는 착한 흥부가 살고 있었다. 심술 올림픽 1등에 빛나는 놀부는 장난전화, 수박에 말뚝 박기 등 기상천외한 심술을 부리고 다닌다. 놀부네 집에서 쫓겨난 흥부는 배고픈 자식들의 성화를 못이기고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받아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부에게도 집채만한 박이 굴러들어온다.

- 일시 7. 4.(목) 10:00 19:30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놀부 장대성, 놀부처 조다정, 흥부 이상찬, 제비 최은희
- 스태프 연출 김미선, 음악감독 공정훈, 대본 김현영, 마케팅 서지예, 김선주, 조명 유윤상, 박신현, 음향 유경재, 고동원



클래식 음악회 뮤직 인사이드 아웃

☆
클래식 음악으로
떠나는 우리 아이
감정 여행

영화 인사이드아웃의 감정 캐릭터들처럼 클래식 음악에도 다양한 감정이 존재한다. <뮤직 인사이드 아웃>은 어린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에 숨어있는 다양한 감정을 소개하고, 그것이 음악 속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함께 찾아보는 클래식 공연이다. 기쁘고 행복한 음악, 화가 난 음악, 사랑스러운 음악 등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는 다양한 곡들을 만나보고, 여러 악기들로 감정을 표현해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본다.

● 프로그램

비제 - Opera Carmen Overture 오페라 카르멘 서곡 / 존 윌리엄스 - Theme from Schindler's List 신들러리스트 주제곡 / 그리그 - In 숲 Hall of the Mountain King 페르퀸트 조곡 중 '산속 마왕의 전당에서' / 모차르트 -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622 클라리넷협주곡 중 제2악장 / 쇼팽 - Etude Op. 10. No. 4 피아노 연습곡 작품번호 10. 제 4번 / 엘가 - Love's Greeting 사랑의 인사 / 헨델 - Water Music Suite 2, 'Alla Hornpipe' 수상음악 2번, 라장조 '혼파이프'

- 일시 7. 16.(화) 19:30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진행·피아노 김정인, 바이올린 김하은, 플룻 임한나, 클라리넷 김미주, 첼로 맹수정, 피아노 진정옥
- 스태프 기획 김정인, 악보 김하은, 소품 임한나



오브제 놀이 연극 무엇이 될까

☆
일상 속 사물들의
재미있는 변신

오브제 놀이 연극 <무엇이 될까>는 막대와 훌라후프, 폐품 등의 다양한 사물을 활용한 연극이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이 이야기 속의 재미있는 그림들로 변화하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참여형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끌어낸다. 어린이들의 일상에서 생겨나는 호기심과 작은 즐거움에서 출발하여 만들어낸 '놀이'와 같은 공연이다.

● 줄거리

귀여운 분홍색 곰돌이 인형 푸리는 버려졌다. 푸리가 또 다른 버려진 물건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 '동물의 나라', '공포의 나라' 등 수많은 공간들을 여행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푸리의 모험 여행기이다.

- 일시 7. 30.(화) 19:30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한준휘, 홍성표, 이예지, 김초원, 신지은, 최원석
- 스태프 연출 유홍영, 조연출 최원석, 조명 김동훈



우광혁 교수와 함께하는 세계악기 여행



세계 여러 나라 악기로
여러 민족의
문화를 만나는
렉처 콘서트

세상은 신기한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소리들은 음악이 될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부터 새들의 울음소리, 심지어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까지 누군가에게 훌륭한 음악으로 다가갈 수 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문화와 전통을 편견 없이 대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악기를 직접 보고, 그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해설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렉처 콘서트이다.

● 프로그램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로 듣는 Amazing Grace / 페루의 껌나로 듣는 El Condor Pasa / 인도네시아의 슬링으로 듣는 Song of Nightingale / 루마니아 팬플류트 A Lonely shepherd / 오카리나 세트로 혼자 연주하는 2중주 / 신발명 악기 '손피리 잼잼'으로 듣는 할아버지의 시계 / Nella Fantasia ets. / 멕시코의 데킬라 / 미국의 뉴올리안즈 재즈에서 라틴까지 / 나레이터와 함께 세계 여러나라 40여 가지 소품으로 현장에서 만드는 소리극 / 재즈보컬의 Fly me to the moon 외 / 베이스 성악 8월의 어느 멋진 날에 외

- 일시 8. 16.(금) 19:30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진행·연주 우광혁, 재즈보컬 우가영,
베이스 우형민



다시 읽는 동화, 낭독 연극 시리즈 II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실수투성이 피노키오의
좌충우돌 성장기

2019 부평문화사랑방 기획공연 낭독연극 시리즈 II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해님 달님' 전래동화를 입체낭독극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해와 달의 기원 신화가 후에 대중화되며 민담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전래동화로 인식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여러명의 배우들이 역할을 나누어 하는 독서를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

● 줄거리

어느 날 동물이 버려졌다. 사육사도 몰타리도 없는 동물의 불쌍한 동물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배고픈 호랑이는 우리를 탈출한다. 호랑이는 우연히 어느 아파트에서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둘만 남겨진 남매를 만나게 된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호랑이의 요청에 안 된다고 거절하는 오빠 사이에서 갈등하던 마음씨 착한 여동생은 호랑이의 꿈에 빠져 마침내 문을 열어주게 된다.

- 일시 8. 22.(목) 19:30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배우 이동건, 홍지인, 이진철, 김희정, 신소영,
연주 배현정
- 스태프 각색·연출 윤사비나, 영상 이의행, 조명 최란,
제작감독 임밀



종이컵 1인 인형극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작은 종이컵 속,
커다란 상상의 세계

‘극단 문(問)’은 아동출판과 아동연극 분야의 연계를 통해 아동 예술 문화 창작의 확대를 꾀하는 단체이다. 박연철 작가의 원작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는 ‘2007 볼로냐 국제 어린이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작품으로 망태 할아버지를 통해 어린이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획일화 시키는 어른들의 모습과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것 같은 착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어른들의 부조리함을 고발한다.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반전은 어른들에게는 가슴 철렁함을, 아이들에게는 통쾌함을 선사한다.

- 일시 9. 6.(금) 10:00 19:30
- 관람연령 전체(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연기·출연 박영희
- 스태프 기획·기술감독 유한수, 조명감독 김용운, 공연진행 김유리

바로크 음악으로 듣는
돈키호테

영동하면 어때



유쾌한 작곡가 텔레만과
영동한 돈키호테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

<영동하면 어때>는 ‘더 뉴 바로크 컴퍼니’가 바로크 시대 작곡가 텔레만의 ‘돈키호테’를 마임과 마술 연기로 풀어낸 마음 치유 음악회이다. ‘더 뉴 바로크 컴퍼니’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원전 악기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앙상블로 ‘고(古)음악’을 미술과 무용, 연극, 과학 등 다양한 예술 및 학문과 융합을 시도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예술 무대를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다름을 인정받지 못하는 획일성을 가진 현대사회에서 광인이라고 불릴지라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았던 돈키호테의 모습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 프로그램

Overture <서곡> / Le Réveil de Quixotte <돈키호테 잠에서 깨다> / Son Attaque des Moulins a Vent, Très vite <풍차 공격> / Les Soupis amoureux après la Princess Dulcinée <둘시네아 공주에게 보내는 사랑의 한숨> / Sanche Panche berné <속은 산초 판자> / Le Galope de Rosinate, Celui d'Ane de Sanche <돈키호테의 말 로시난테와 산초의 당나귀의 겹걸음 춤> / Le couché de Quixotte <돈키호테 잠들다> / Sonata in D major TWV 44:1 Sinfonia Spirituosa <희망 그리고 선택>

- 일시 9. 20.(금) 10:00 19:30
- 관람연령 5세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리코더 김규리, 바로크 바이올린 최현정, 바로크 첼로 장유진, 하프시코드 아렌트 호러스펠드, 마임 및 연기 이정훈, 마술 및 연기 송다민



Funny Band의 즐거운 클래식

☆
상상 이상의
즐거운
클래식 공연

<즐거운 클래식>은 전통 클래식 음악과 결합된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공연이다. 클래식 전공자들이 의자를 버리고 유쾌하게 춤추듯 연주하며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을 선보인다. 'Funny Band'는 지난 2001년 결성 이후, 1,8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재미와 웃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브라스 앙상블 퍼포먼스 그룹이다.

● 프로그램

Just a closer walk / Instant concert / Mo better blues /
Sing Sing Sing / In the mood / William tell overture /
Clear the line / Can can / When the saints go marching

- 일시 10. 3.(목) 10:00 19:30
- 관람연령 36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트럼펫 박태흠, 김정현, 호른 이정민,
트럼본 이종성, 튜바 안정민, 드럼 임재현
- 스태프 연출 차윤석, 진행 조정용



어린이 연극 행복한 왕자

☆
연극으로 배우는
이웃사랑의 행복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를 원작으로 하는 연극이다. 왕자의 동정심과 제비의 희생을 통해 아이들이 이타심에 대해 배우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작품이다.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바탕이 되고 마스크 플레이, 아름다운 영상, 그림자극 등의 다양한 장치가 시도되어 마치 동화책이 펼쳐진 듯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 일시 10. 11.(금) 19:30
- 관람연령 5세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제비 허정진, 성냥팔이 소녀 박은미, 작가 나준연,
성냥팔이 조민수
- 스태프 작 오스카 와일드, 각색·예술감독 김정숙,
연출 김기정, 조명 김윤희, 영상 정혜지,
무대 정수미, 무대제작 김영호, 인형제작 박성찬,
음향 김현명, 기획진행 강현하



가족 연극

거리 위의 빨간 모자



소박한 가족애를
배우는 2인극

극 중 인형극인 '빨간모자와 늑대'를 공연하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아름다운 삶이 그려진 연극이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거리 위의 인형극 무대를 세우고 관객을 불러 모으는 할아버지와 빨간 모자 공연을 위해 혼자서 공연 준비에 바쁜 손녀딸 앤이 등장한다. 할아버지가 엄마, 늑대, 사냥꾼 3가지 역할을 소화하고, 손녀가 빨간모자와 할머니로 변신해 연기하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전한다.

- 일시 10. 15.(화) 19:30
- 관람연령 5세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할아버지 박재춘, 손녀 김수진
- 스태프 운영스텝 박재춘, 이건우, 천정희

전통음악과 마술의
콜라보 음악극

호랑이와 꽃감



호랑이와 소 도둑의
좌충우돌
마술 음악극

오래전부터 내려온 어리석은 호랑이가 꽃감을 자기보다 무서운 존재인 줄 착각하고 도망가는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를 국악과 마술을 접목하여 만든 음악극이다. 전래동화가 담고 있는 교훈을 국악의 전통성과 현대적인 감성으로 표현하여 극적 재미를 더했다.

● 줄거리

엄마가 아이를 달래주다 꽃감이라는 단어에 아이가 울음을 그치자 호랑이는 꽃감이 자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때 소를 훔치러 온 소도둑이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호랑이 등에 덥석 올라타자 호랑이는 소도둑을 꽃감이라 생각하고 두려움에 기겁을 하며 도망가게 된다.

- 일시 11. 5.(화) 10:00-19:30
- 관람연령 5세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피리 김기재, 대금 최우창, 가야금 이성희, 해금 이한나, 타악 김보경, 최성묵, 신디 전인형, 호랑이 추현종, 토끼 김지은, 원숭이 이동빈, 소도둑 김문환
- 스태프 기획 및 음악 노민우, 극연출 추현종



인문학 렉처콘서트

프랑스 여행 스케치



클래식과 함께
파리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프랑스는 파리와 베르사유 궁전, 수많은 성과 정원들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왕권 확립을 위해 웅장한 궁중문화와 섬세하고 화려한 귀족문화를 누렸다. '문화강국'이라는 이미지로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 대해 프랑스 문화박사 해설로 상세히 배워볼 수 있다.

● 프로그램

Un homme et une femme / Jean Baptiste Lully - Gavotte en Rondeau for piano / Air de Toréador(투우사의 노래) / Habanera(하바네라) / Les champs(오, 상제리제) - Joe Dassin / Saint Saens, Introduction and Rondo Capriccioso / Bolero - Maurice Joseph Ravel / Deux Arabesques NO.1(아라베스크), On my own / Bring him home / Do you hear the people song?

- 일시 11. 22.(금) 19:30
- 관람연령 5세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진행 박명희, 소프라노 송지영, 바리톤 김진우, 피아노 김예송, 기타 이기영, 바이올린 유현우, 첼로 양아영
- 스태프 스텝 강동우, 감독 오현주



아름다운 클래식

클라츠 트리오



사랑방에 스며든
러브클래식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클라츠 오케스트라'의 악장 이다은, 수석 이호찬, 신세대 피아니스트 최현호 세 멤버들은 따뜻한 선율과 놀라운 몰입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내비치며 차세대 트리오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통 클래식부터 재즈와 팝을 아우르는 폭넓고 독창적인 레퍼토리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 프로그램

사랑의 기쁨(Liebesfreud) : F.Kreisler / 사랑의 슬픔(Liebesleid) : F.Kreisler / G선상의 아리아 : J.S.Bach / Por una Cabeza (여인의 향기 OST) / Last Carnival : Acastic Cafe / The way we were : Barbra Streisand / 사랑의 인사(Salut d'amour) : E.Elgar

- 일시 11. 26.(화) 19:30
- 관람연령 5세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바이올린 이다은, 첼로 이호찬, 피아노 최현호
- 스태프 운영 이설아



크리스마스 콘서트 사랑방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Solar Band가
들려주는
캐롤과 동요

‘Solar Band’는 가요, 팝, 동요, 3세계 음악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친숙한 곡들을 재즈 형식으로 옷을 입혀 쉽고 재미있게 재즈를 연주하는 팀이다. 어린이부터 부모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캐럴과 동요를 연주하고, 설명을 함께 곁들여 관객들이 곡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한다.

● 프로그램

징글벨 / 루돌프 사슴코 / 화이트 크리스마스 / Feliz Navidad / Santa Claus Comin to Town / Christmas Song / Silver Bell / Have your self a little Christmas

- 일시 12. 14.(토) 19:30
- 관람연령 5세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색소폰 남진우, 피아노 박지혜, 베이스 한다빈, 드럼 김정훈
- 스태프 기획 및 연출 남진우



다시 읽는 동화, 낭독 연극 시리즈 피 스크루지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에 겪는
고난과 개과천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마음씨 고약하고 돈밖에 좋아 하는게 없는 천하의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가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된다.

● 줄거리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은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는 직원을 구박하는 일이 일상이다. 어느 때와 같이 심술로 가득한 하루를 보낸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오래 전 죽은 친구가 유령의 모습으로 스크루지를 찾아온다. 이어 크리스마스의 영들과 함께 스크루지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된다.

- 일시 12. 20.(금) 19:30
- 관람연령 5세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 출연진 배우 양승한, 이동건, 신소영, 정바라, 김민혜, 홍지인, 연주 배현정
- 스태프 각색·연출 윤사비나, 영상 이의행, 조명 최란, 제작감독 임밀



특별기획 시리즈

관람료 전석 7,000원

오정해와 함께하는
키즈 국악 콘서트

다양하게
즐기는
국악 시리즈

영화 '서편제'로 유명한 국악인 오정해가 안내하는 국악여행을 떠난다. '사물놀이의 진수'는 사물놀이의 새로운 정점을 찍으며 국내외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젊은 국악인 팀 '느닷'과 함께 흥겨운 사물놀이에 대해 알아본다.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사물놀이를 보고 들으며 한바탕 신나게 즐겨볼 수 있다. '너랑나랑 아리랑'은 따뜻하고 편안한 음악으로 사랑받는 '국악그룹 동화'와 함께 대표 창작 국악곡을 감상하고 아리랑을 배워볼 수 있다. 또한 공연자들이 자신의 장기를 선보이고, 관객들의 호응으로 투표하여 승자를 가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물놀이와 탈춤, 그리고 사자야 놀자'는 '느닷'팀이 탈춤과 함께 사자탈춤을 선보인다. 각 지역의 탈춤과 열정적인 사물놀이 연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춤꾼들의 익살스런 재담, 흥을 돋우는 춤사위로 아이들이 공연자와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관람연령 36개월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오정해 국악인

소리꾼이자 배우인 오정해는 판소리 중요무형문화재였던 고(故) 김소희 선생의 마지막 제자이다.

오정해는 영화 서편제로 가장 한국적인 배우로 널리 알려졌다.

서편제에서 한의 소리를 처절하게 표현해낸 그녀는 한을 희망을 담은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3년 '대중상 신인여우상' 수상을 시작으로 1995년 '일본영화비평가협회 최우수여우주연상', 1997년에는 '제3회 한국뮤지컬대상 신인상', 2007년 '제29회 남프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리즈 1. 느닷이 펼치는 사물놀이의 진수

● 프로그램 문굿 - 사물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문굿'. 나쁜 기운은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물고 들어간다. / 비나리 - 신에게 기원을 올리는 노래로 무사태평과 장수를 비는 덕담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삼도설장고 -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지방의 풍물에서 명성을 날리던 장고 명인들의 가락을 모아 정리하여 연주하는 장구 합주이다. / 호남사물놀이 - 호남 지방의 풍물 중 전국 6대 풍물에 속하는 '임실필봉풍물, 구례진수풍물, 이리풍물굿' 이 세 가지 풍물가락으로 구성되었다. 전라도 지역의 소리 중 '농부가'와 '태평소 연주'를 함께 엮어 전라 지방의 고유의 맛을 살린 느닷만의 작품이다. / 사물놀이 판굿 - 머리에 상모를 쓰고, 악기를 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대형을 갖추며 시각적 요소를 강하게 살린 연주곡이다. / 개인놀이 - 상쇠놀이, 징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버나, 열두발놀이 등 연주자 개인의 다양한 기량을 뽐내는 공연이다.

● 일시 5. 19.(일) 16:00

● 출연진 해설 오정해, 팽과리 권설후, 징 표한진, 장구 이준형, 박성근, 북 주영호

시리즈 2. 동화가 전하는 너랑나랑 아리랑

● 프로그램 연주 - 신바람, 비 갠 뒤, 숨바꼭질 / 체험 - 아리랑 배우기, 가사 짓기, 노래 부르기 / 참여 - 젊은 명인 스타 대전

● 일시 6. 7.(금) 19:30

● 출연진 해설 오정해, 대금 서유석, 해금 이수아, 거문고 윤희연, 전통타악 이상훈, 정가 임상숙, 민요 이수완, 건반 백아람

시리즈 3. 사물놀이와 탈춤, 그리고 사자야 놀자

● 프로그램 문굿 -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문굿'. 나쁜 기운은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물고 들어간다. / 삼도탈춤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봉산탈춤, 고성오광대, 안동하회별신굿을 소개한다. / 삼도농악가락 - 웃다리(충청권), 영남, 호남의 풍물가락을 한 데 모아 연주하는 사물놀이 최고의 연주곡으로, 연주자들의 최고 기량을 맛 볼 수 있다. / 사물놀이 판굿 - 머리에 상모를 쓰고, 악기를 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대형을 갖추며 시각적 요소를 강하게 살린 연주곡이다. / 사자춤 놀이 - 사자의 탈을 쓰고 행하는 민속놀이로, 신령스러운 사자를 통해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과 잡귀를 물리치며, 마을의 무사 안녕을 빈다.

● 일시 7. 12.(금) 19:30

● 출연진 해설 오정해, 팽과리 권설후, 징 표한진, 장구 이준형, 박성근, 북 주영호, 탈 김성현, 김경환, 김광수

홍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클래식

☆
해설이 있는
클래식 콘서트

홍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클래식>은 온 가족이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이다. 발레 음악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클래식과 발레', 기억에 남을 명장면 속 테마음악 연주와 즐거운 스토리를 전하는 '클래식과 영화 음악', 클래식과 함께 한 위대한 명작 스토리 '클래식과 미술', 음악의 도시를 찾아 떠나는 '클래식과 도시' 총 4회로 진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와 무용가가 선보이는 재미있고 쉬운 클래식을 접할 수 있다.

관람연령 5세 이상(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전공 교수

부천문화재단 이사장, KBS 교향악단 이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추진위원회, 대전시립예술단 자문위원, 수원시립예술단 자문위원 등으로 재직중이며 대통령실 문화정책 자문위원, 예술의전당 공연예술감독,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예술감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 국립발레단 운영위원, 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시리즈 1. 클래식과 발레

- **프로그램** 백조의 호수 중 아다지오 Swan Lake Adagio / 해적 중 그라아드되 Le Corsaire Grand Pas de Deux / 호두까기인형 파드되 Harlequinade Pas de Deux / 돈키호테 DON QUIXOTE
- **일시** 9. 27.(금) 19:30
- **출연진** 진행 홍승찬, 발레 인천시티발레단

시리즈 2. 클래식과 미술

- **프로그램** 헨델과 오라토리오의 '메시아' / 레치타티보의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 아리아 '모든 산은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 메워지리라' /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 사티 'Je te veux', '꿈꾸고 난 후' /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에서 '프롬나드'와 '키에프의 성문'
- **일시** 10. 25.(금) 19:30
- **출연진** 진행 홍승찬, 피아노 이승윤, 첼로 박동규, 바이올린 이은지, 소프라노 여나현, 테너 김민영

시리즈 3. 클래식과 도시

- **프로그램** 스페인 Albeniz 'Tango' / 프랑스, 파리 ①Debussy '아라베스크', 'Suite Bergamasque - 달빛' ②Faure 'Après un rêve(Earl wild 편곡)' / 노르웨이 Grieg 'Peer Giant book.1' / 핀란드 Palmgren Grieg Snowflakes / 폴란드, 바르샤바 ①Paderewski 'Melodie, Nocturne' ②Chopin 'Waltz' / 러시아, 모스크바 ①Kapustin 'Sonata no.6'(재즈) ②Rachmaninoff 'Vocalise(Earl wild)', 악흥의 순간 4번
- **일시** 11. 19.(화) 19:30
- **출연진** 진행 홍승찬, 피아노 김준희, 바이올린 한수진

시리즈 4. 클래식과 영화음악

- **프로그램**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 양들의 침묵 /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 바치는 노래 - 드라이브 미스 데이지 /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 - 쇼생크 탈출 / 오펜바흐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뱃노래 - 인생은 아름다워 / 말러의 가곡 나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져가고 - 가면 속의 아리아 / 쇼팽 발라드 1번 - 피아니스트
- **일시** 12. 6.(금) 19:30
- **출연진** 진행 홍승찬, 피아노 김준희, 소프라노 정시영, 메조소프라노 손진희

문화예술교육

그림책으로 우리 아이 마음 들여다보기 그림책 놀이터



독서·미술치료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림책 예술놀이

그림책에는 다양한 예술적, 문화적, 교육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책을 매개로 예술활동과 놀이를 통해 독서치료와 코칭을 경험하고, 아이의 경험과 감정을 확인한다. 성장기의 갈등을 매만지며 자신감을 키워주는 과정이다. 한편 참여하는 유아들의 부모님과 1:1 맞춤상담과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 프로그램

- 1차시 창의그림 그리기 / 상상력을 키우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표현을 한다.
- 2차시 스피드 그림퀴즈 / 그림퀴즈를 풀며 어휘 및 순발력을 키운다.
- 3차시 상상화 그리기 / 자유로운 상상으로 풍성한 상상력을 키운다.
- 4차시 쏠라라를 이겨라 / 다양한 대근육놀이를 통해 유연성과 협동심을 경험한다.
- 5차시 구멍으로 보는 세상 /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과 시야를 경험한다.
- 6차시 함께 그리는 그림 작품이 되다 / 공동작업으로 협동심을 기르고 각자의 그림이 모여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을 체험한다.
- 7차시 움직이는 조각상 /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주제에 맞는 조각상을 몸으로 만든다.
- 8차시 내이름 팝업북 / 내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찾고 이름의 소중함을 알아본다.

- 일시 4. 8. - 6. 3. 매주 월 16:30 - 18:00(총 8회 / 5. 6. 휴강)
- 대상 6-7세 13명, 학부모
- 참가비 12만원
- 교육자 독서치료 김수민(쏠라라의 그림책놀이터), 미술치료 조희진

부모님 한 줄 후기

아이가 그림책 읽기에 흥미가 생겨서 책을 읽어달라고 먼저 얘기해요.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어요. 책과 그림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신기할 만큼 수업에서 본 책의 제목과 내용을 잘 기억해요. 도서관에서도 잘 찾아보네요.
그림책과 연관된 확장 놀이도 아이가 스스로 제한할 만큼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과정드라마 (Process Drama)형 연극놀이

어디어디 숨었나



신나는 감각나라와
감정행성으로 여행을
떠나는 연극놀이

2014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로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이후 6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어디어디 숨었나>는 사랑방의 대표 문화 예술교육 과정이다. 감각과 감정으로의 탐험여행을 담은 과정 드라마로 참여 어린이들이 탐험대원이 되어 일련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연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정서 발달을 돕고, 표현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으며, 놀이를 통해 표현 방법을 기른다.



● 프로그램

- 1차시 여행 준비 / 사랑방의 공간과 함께 탐험하게 된 친구들과 친근해진다.
- 2차시 감각 나라 1 / 눈빛 나라, 소리 나라, 말의 나라 연극 속 인물을 통해 감각을 읽는다.
- 3차시 감각 나라 2 / 자신의 느낌을 그림과 몸으로 표현한다.
- 4차시 감각 나라 3 / 마을 산책을 하며 시각, 청각, 촉감 등의 감각을 깨운다.
- 5차시 감각 나라 4 / 말과 몸짓으로 상상을 표현한다.
- 6차시 감정 행성 1 / 나와 친구들에게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감정을 살펴본다.
- 7차시 감정 행성 2 / 눈물이 주르륵 행성에서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한다.
- 8차시 감정 행성 3 / 붉으락 푸르락 행성에서 분노의 감정을 들여다본다.
- 9차시 감정 행성 4 / 하하 호호 행성에서 협동하면서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낀다.
- 10차시 감정 행성 5 / 외로움의 별을 찾아가 가족과 함께 연극놀이를 해본다.

- 일시 4. 17. - 7. 3. 매주 금 16:30 - 18:30(총 10회 / 5. 1., 5. 15. 휴강)
- 대상 1-2학년 8(12)명
- 참가비 20만원
- 교육자 마노 김인혜, 상자 이현수(목요일오후한시), 민트 박지원(프락시스)

부모님 한 줄 후기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고, 다른 친구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연극을 통해 감정을 배울 수 있어 좋았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대해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모르던 아이의 감정을 알게 되었어요.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창의 예술교육

몸으로 표현하는 드로잉



신체의 감각을 활용하고
다양한 드로잉으로
창작하는 미술체험

참가비 10만원

신체를 소재로 하는 미술교육으로 김푸르나 아티스트의 작품 세계를 함께 공유하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깨우는 과정이다. 협업 워크숍을 통해 또래끼리 소통하며 신체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다. 현대미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각을 반영한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본다.



● 프로그램

- 1차시 이미지 연구 : 나의 감각 컬러 / 자신의 감각을 색상으로 표현하고 이를 컬러차트의 형태로 만들어본다.
- 2차시 이미지 연구 : 나의 감각 형태 / 자신의 감각을 선과 형태로 표현하고 컬러와 결합시켜 나만의 감각으로 탄생된 새로운 이미지 패턴을 제작한다.
- 3차시 이미지 표현과 드로잉 : 얼굴과 몸 / 친구와 함께 손과 얼굴을 활용하여 터치 드로잉을 해본다.
- 4차시 이미지 표현과 드로잉 : 신체와 공간 / 무대조명을 이용해 친구와 함께 그림자 드로잉 작업을 하고, 신체를 이용하여 그림자 형상을 만들어본다.
- 5차시 이미지 채집과 조합 /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아이들이 직접 이미지를 채집하고 재조합한다.
- 6차시 공동작업 : 이미지 그래피티 1 / 벽화작업의 형태를 가져온 그래피티 수업으로 자신이 수집한 이미지를 주제에 맞게 배치해본다.
- 7차시 공동작업 : 이미지 그래피티 2 / 벽화작업의 형태를 가져온 그래피티 수업으로 콜라주 단체작업을 마무리 한다.
- 8차시 전시발표회 : 감각 이미지 전시회 / 작업한 작품을 전시하고 가족을 초대하여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다.

● **일시** 6. 10. - 7. 29. 매주 월 16:30 - 18:30(총 8회) ● **대상** 3-4학년 9(15)명

● **교육자** 김푸르나(감각이미지연구소), 이하운

참여자 한 줄 후기

내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 더 하고 싶어요. 좋은 추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한 줄 후기

자유로운 방식의 미술 수업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양한 미술활동을 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시켜 좋았어요. 수업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더 많이 늘려 연계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주제별 연극체험 놀이

참가비 5만원

즐거운 방학기간을 맞아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이 연극놀이에 참여하고 언어와 신체를 이용한 표현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이다. 그림, 박물관, 문학작품 '모모'를 3가지 주제로 각각 5일간 진행된다. '마음으로 보는 그림 & 몸으로 그리는 세상'은 미술의 기본요소인 선과 색, 그림을 소재로 연극적인 상황을 체험해본다. '무엇이든 박물관, 문을 열다'는 기억의 장소인 박물관의 의미를 알고 연극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행위 해본다. '모모와 시간도둑'은 미카엘 엔데 '모모'를 통해 시간의 의미와 행복한 삶에 대해 생각 해본다.

과정 1. 마음으로 보는 그림 & 몸으로 그리는 세상

● 프로그램

- 1차시 선들의 여행 / 미술의 기본요소인 선을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구성한다.
- 2차시 상상으로 열리는 그림 / 마그리트 그림을 통해 상상하고, 극적인 상황을 즐겨본다.
- 3차시 색깔나라 여왕님 / 인간의 감정과 상황을 다양한 색으로 상징할 수 있음을 배운다.
- 4차시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 / 사실적인 그림과 느낌으로 그린 고흐, 샤갈, 피카소의 그림을 보며 자신의 일상과 연관시켜 표현한다.
- 5차시 화가 고흐 그림과 편지 / 고흐의 그림과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화가의 표현욕구와 갈등을 체험한다.

● **일시** 8. 1.(목) - 7.(수) 10:30 - 12:00(총 5회)

● **대상** 1-2학년 13(15)명

● **교육자** 제인현, 김민주(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과정 2. 무엇이든 박물관, 문을 열다

● 프로그램

- 1차시 열려라 연극놀이 / 연극적 감각을 깨운다.
- 2차시 올림푸스 산의 승리 / 박물관 어원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다양한 예술형식으로 표현한다.
- 3차시 열려진 비밀의 방 / 박물관이 생겨난 과정을 이해하고 수집과 분류를 통해 표현한다.
- 4차시 박물관에서 생긴 일 / 공간 구축 및 역할놀이를 즐기며 관광객의 입장을 고려한 아이디어를 낸다.
- 5차시 기억의 샘물 / 시의 연극적 표현을 즐기고, 기억의 주체로서 나 자신을 인식한다.

● **일시** 8. 8.(목) - 14.(수) 10:30 - 12:00(총 5회)

● **대상** 1-2학년 14(15)명

● **교육자** 김민주, 최영록(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과정 3. 모모와 시간도둑

● 프로그램

- 1차시 모모와의 만남 / 나와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타인과 소통하고 즐겁게 노는 경험을 쌓는다.
 2차시 화색신사들의 음모 / 여유 없이 바쁜 삶을 살아보며, 행복의 조건에 대해 생각한다.
 3차시 빼앗긴 시간 / 시간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실행한다.
 4차시 모모가 없는 동안 / 모모가 없는동안 친구들의 변화를 연극 장면으로 표현한다.
 5차시 시간의 꽃 / 시간의 의미와 가치있는 시간에 대해 생각한다.

- 일시 8. 8.(목) - 14.(수) 13:30 - 15:00(총 5회)
 ● 대상 3-4학년 15명
 ● 교육자 김민주, 최영록(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참여자 한 줄 후기

재미있는 놀이를 해서 좋았어요. 수업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선생님이 모모연기를 할 때 정말 실감났어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좋았어요.

부모님 한 줄 후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즐거운 체험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정말 좋았어요.
 날짜를 더하거나 시간을 늘려주면 좋겠어요.
 아이가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려보고 꾸며볼 수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수업 후 브리핑을 해주셔서 좋았어요.
 아이들 연령에 맞춘 활동이어서 아이가 너무 재미있어 하고 다시 가는 날을 기다려요.
 아이가 마음을 열고 생각한 점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왔네요.
 아이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이야기를 진행하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창의 예술교육

나도 미디어 아티스트!

빛과 소리를 이용한
미디어아트 체험

매체를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미디어 아트 장르를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과정으로 직접 소리와 빛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익숙한 소리가 빛과 그림자와 어우러져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핸드폰, 구리 철사, 건전지, 자석, 알루미늄 호일과 같이 흔한 일상 재료부터 전기회로 같은 공학 재료까지 다양하게 활용해본다.



● 프로그램

- 1차시 소리 콜라주 / 핸드폰으로 주변 소리를 채집하여 사운드 콜라주 작품을 만든다.
 2차시 키넥트 그림자 아트 / 키넥트 그림자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작품을 만든다.
 3차시 빛과 소리를 채운 공간표현 1 / 소리채집 방법을 익히고 LED병렬회로를 만들어 작품을 구상한다.
 4차시 빛과 소리를 채운 공간표현 2 / 터치센서와 연계하여 손대면 빛과 소리가 나는 전기회로 작품을 만든다.
 5차시 비주얼 아트 1 / 소리를 이용하여 빛을 제어하고 감각의 확장을 경험한다.
 6차시 비주얼 아트 2 /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공간과 물체에 영상을 투사하고 시공간을 재창조 해본다.

- 일시 8. 3. - 9. 7. 매주 토 10:00 - 12:00(총 6회)
 ● 대상 초등학생 11(20)명
 ● 참가비 10만원
 ● 교육자 윤제호, 박선유, 예술공학창작소 크래커(Cracker)

참여자 한 줄 후기

그동안 잘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활동을 하면서 행복했어요. 이런 수업이 더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요.

부모님 한 줄 후기

새로운 분야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게 잘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업이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인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업이어서 아이도 호기심 있게 참여했어요.
 미디어아트라는 새로운 예술분야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랑방 공간이 다양한 문화예술 수업을 하기 좋은 것 같아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느린 연극 교실



발도르프 교육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예술표현력 기르기

참가비 12만원

발도르프 교육과 연극교육의 융합된 과정을 통해 창조적인 상상력과 예술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신체, 정서, 사고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차분히 색의 조화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건강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프로그램

- 1차시 안녕 발도르프? 느린연극? / 만남과정에서 낯설음을 없앤다.
- 2차시 나의 몸 머리, 손, 발 이야기 / 손과 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동물이 되어 표현한다.
- 3차시 만남 1 노래 / 노래를 활용한 연극놀이를 한다.(발도르프 교육의 이해를 돕는 부모워크숍 진행)
- 4차시 만남 2 시 / 시를 활용한 연극놀이를 한다.
- 5차시 연극만들기 1 /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사가 있는 즉흥극을 만든다.
- 6차시 연극만들기 2 / 전통놀이와 노래에 대한 이야기로 장면을 만들어본다.
- 7차시 함께 만드는 이야기 / 짧은 공연을 완성하고 습식수채화 결과물을 연결하여 큰 그림을 완성한다.
- 8차시 가족과 함께 파티 / 공연 발표와 함께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일시 9. 4. - 10. 30. 매주 수 16:00 - 18:00(총 8회)
- 대상 3-5학년 9(15)명
- 교육자 연극 김은미, 김은영, 발도르프 미술 유희경, 김주아, 김하진(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부모님 한 줄 후기

습식수채화와 연극을 통해 내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습식수채화 그림마다 다양한 느낌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키즈풍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



도깨비를 주제로
전통문화예술을
체험하는 통합교육

참가비 무료

도깨비에 얹힌 옛 이야기를 통해 연극, 율동, 전통놀이, 레코딩 작업 등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도깨비 연극을 관람한 후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도깨비 캐릭터와 연관된 놀이 과정에서 표현력을 길러본다. 상상력을 가미하여 버나, 쥐불, 연극의상 등의 만들기를 직접 한 후, 연극 속 주인공이 되어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도깨비 노래를 개사하여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편곡된 음원을 받아보게 된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강강술래와 길쌈놀이는 전통놀이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 프로그램

- 1차시 도깨비야 안녕! / 교육과정 소개, 부모님과 강강술래 경험하기.
- 2차시 불도깨비(빨간색) / 불도깨비 극관람, 빨간색과 어울리는 감정을 악기로 표현, 쥐불놀이
- 3차시 밤도깨비(파란색) / 밤도깨비 극 관람, 파란색과 어울리는 감정을 빛으로 표현, 투호놀이
- 4차시 돈도깨비(노란색) / 돈도깨비 극 관람, 감정이모티콘 놀이, 버나놀이
- 5차시 떡도깨비(초록색) / 떡도깨비 극 관람, 진주찾기 놀이, 말뚝이 떡먹이기 놀이
- 6차시 노래연습 / 4가지 도깨비 노래 개사하고 율동을 배워 연습, 연극의상 만들기
- 7차시 레코딩 / 도깨비 노래를 직접 부르며 녹음, 도깨비 연극놀이
- 8차시 결과발표 / 이야기가 있는 부모브리핑, 도깨비노래 음원공개, 부모와 함께하는 길쌈놀이

- 일시 1기 4. 6. - 6. 1. 2기 6. 8. - 7. 27. 3기 9. 21 - 11. 9.
매주 토 9:30 - 12:00(각 8회)

- 대상 1-2학년 1기 18명, 2기 19명, 3기 20명(총 57명)

- 교육자 1기 김현영, 현주연, 조다정, 정태경
2기 서지예, 현주연, 조다정, 양승진
3기 현주연, 조다정, 정민희, 이다혜(좋은소리 소리랑)

참여자 한 줄 후기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꿈다락 너무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같이 협동이란걸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늘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즐겁게 수업해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 한 줄 후기

덕분에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었어요. 너무 유익했어요.
 전통놀이가 이렇게 신나는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에너지 넘쳐서 좋았어요.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 좋았네요.
 흥미, 재미, 교훈적 내용 등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과 강사님들이었어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국악,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이 있어 좋았어요.
 헤어짐이 아쉬운 수업은 아이를 키우며 처음이에요.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최고였어요.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수업 중간에 연극도 보여주셔서 좋았어요.
 아이들의 참여가 많은 것이 좋았어요. 교육 중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밴드 소식도 좋았어요.
 참가비를 내더라도 전통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키즈풍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 강사 워크숍

<도깨비 놀기 좋은 날> 과정을 보완하고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음악치료 전문가에게 감정파악과 음악치료 기본이론을 배워보았다. 강사들이 감정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인지해보았으며, 음악치료 과정을 체험하며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프로그램 음악치료의 기본이론과 실제, 나의 정서와 감정 파악하기, 타인의 감정 공감하기
- 일시 9. 9.(월) 15:00 - 17:00
- 대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교육자 및 관계자 10명
- 교육자 이소정(한국역할극문화예술교육협회 이사)

키즈풍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 교육자 후기

좋은음악 소리랑 현주연(1기~3기)

<도깨비 놀기 좋은 날>은 우리나라 도깨비의 모습을 상상하여 극과 전통문화예술 놀이로 풀어낸 활동으로 매회 수업마다 개성 넘치는 도깨비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사랑방의 아늑한 공간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공연자와의 거리감을 좁혀 극으로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극을 감상한 후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대입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극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진솔하게 꺼내도록 돕는 도구가 되기에 훌륭하다. 도깨비들에게는 각각의 테마송이 있는데, 이 노래들을 배워 후에 아이들이 직접 작사와 노래로 레코딩 작업에 참여하여 꿈다락의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극 속에 있는 옛 문화를 찾아 놀이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활동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놀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협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처음 만날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온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 있던 것이 기억난다. 또 다른 학원에 오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에는 아이들이 토요일만 기다려 왔다고 말하면서, 꿈다락에 매일 오고 싶고 학년이 올라가도 참여하고 싶다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교사로서 아이들의 이런 표현들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자신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을 갈급해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잠시라도 아이들이 꿈다락에서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고, 전통문화예술이 아이들의 표현 예술에 길잡이가 되었던 것에 감사하며, 그런 기회를 제공해준 사랑방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꿈다락 수업을 마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외쳤던 구호를 다시 한 번 우리 아이들에게 외쳐본다. "꿈꾸는 꿈다락 파이팅! 그리고 꿈꾸는 아이들 파이팅!"

좋은음악 소리랑 조다정(1기~3기)

수업 전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면 반가운 얼굴로 ‘도깨비선생님이다.’라고 먼저 달려와 반겨준다. 매 차시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부평문화사랑방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넓히고 감각을 자극 할 수 있는 곳이다. 문화예술 수업을 할 때마다 극장공간의 장점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더욱 빛났던 것 같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채워주는 공간은 조명으로 구현되며, 원하는 모든 것들이 실현된다. 덕분에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도깨비 이야기에 빠져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팀장님. 쉬는 날에도 조명, 음향을 해주시기 위해 나와 주신 조명 감독님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좋은음악 소리랑 정민희(3기)

‘함께했던 시간의 좋았어요.’ 설문지에 적힌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맞춤법이 서툰고 뽀뽀뽀뽀 쓰여 있다. <도깨비 놀기 좋은 날>은 수업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았고 나를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기도 어색할 만큼 아이들과 대화가 너무 좋았다. 8주 동안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고 감정을 공유한 느낌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깨비 이야기 한두 개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도깨비 놀기 좋은 날>은 네 명의 도깨비를 주제로 색과 감정을 연결하여 짧은 극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또 그에 맞는 전통놀이를 진행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나는 감정에 대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 본 적이 있었나?’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솔직하고 직설적이다. 이때의 감정은 이랬고요, 이럴 땐 도깨비가 잘못된 점이고요 하며 연극을 보며 자신이 느낀 점을 정확히 알려준다. 또한 매 차시마다 만들기 진행했다. 나만의 쥐불, 별, 버나, 떡 등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것으로 전통놀이를 진행했더니 아이들은 자신의 미적 감각과 주장을 뚜렷하게 말하며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저는 천사예요. 화가 많은 불 도깨비의 마음을 사랑으로 풀어 줄 거예요”라며 사랑의 하트를 만들고 날개와 머리띠를 만들며 팀끼리 만든 연극 대사도 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허물없이 가까이 다가가며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부평문화사랑방을 통해 공간이 주는 마법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조명을 켤 수 있는 넓고 쾌적한 공간, 아이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무대. 사랑방의 무대, 분장실, 조명, 객석 등을 직접 둘러보자 아이들은 자신만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불 도깨비의 붉은 조명, 밤 도깨비의 블랙라이트로 별빛을 만들고 길동이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랑방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시도였다. 이 글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팀장님, 조명 감독님 감사합니다.

꿈다락, ‘예술로써 소통하는 법을 알아가며 타인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나와 가까이에 존재하는 문화예술교육’. 이 어려워 보이는 문장이 ‘어렵지 않다. 아니 세상 쉽다.’ 더 많은 입소문으로 모든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꿈꾸는 꿈다락 파이팅!

문화예술교육 설문응답 결과

2019년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운영한 문화예술교육 11개 과정의 참여자 수는 총 150명이다.¹¹⁾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부분 참여자이므로, 150명 참여자들의 부모들에게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116명(77.33%)이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교육기간 및 시간의 적정성’ 외 95점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서술 응답에서 ‘교육기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많아,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이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아닌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체 평균 점수는 97.32점으로 사랑방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9 부평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설문응답 결과>

(단위 : 점)

구분	내용	응답점수	평균점수
과정평가	커리큘럼의 체계성	96.9	95.69
	교육내용 난이도	96.21	
	교육기간 및 시간 적정성	92.41	
	전반적 만족도	97.24	
강사평가	교육자의 전문성	98.78	98.18
	교육자의 상호작용	98.1	
	교육자에 대한 만족도	97.59	
기관평가	강의 안내 및 준비	98.26	98.10
	공간 및 환경 쾌적성	97.91	
	응대 서비스	98.1	
	사랑방에 대한 만족도	98.28	
평균점수		97.32	

* 응답자 : 150명 중 116명 응답

*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 환산

1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강사워크숍 참여자 제외

부평문화사랑방 대관

27건

01. 07.(월)	패러다임(선생님들이 원생에게 해주는 공연)	솔루션연구소
09.(수)	세대공감 사람책 콘서트	갈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금)	해랑 어린이집 재롱 발표회	해랑 어린이집
02. 13.(수)	준태권도장 시범단 공연 리허설	준태권도장
15.(금)	준태권도장 시범단 공연	
03. 26.(토)	제9회 김구용문학제	문화예술소통연구소
04. 06.(토)	음악공연(밴드, 보컬, 댄스, 힙합)	부메아리
22.(월)	공연연습	좋은음악 소리랑
05. 11.(토)	노은주 음악학원 31주년 음악회	노은주 음악학원
25.(토)	가야금발표회	이다운
06. 15.(토)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여름 음악회	하늬오카리나 앙상블
18.(화)	힐링콘서트 <봄 그리고 여름>	부평구사회복지연구회
07. 05.(금)	작품영상촬영	느낌커뮤니케이션
06.(토)	부천발도로프 발표회	부천자유발도로프
13.(토)	故 박한성 김광일 2주기 추모공연	오영미 박경준
20.(토)	공연연습	좋은음악 소리랑
31.(토)	전영랑, 경기잡가 앓은소리 <춘향을 노래하다>	예술숲
08. 03.(토)	패러다임(선생님들이 원생에게 해주는 공연)	솔루션연구소
10.(토)	에이탐뮤지컬연기학원 정기 발표회	에이탐뮤지컬연기학원
24.(토)	제18회 카이 예술단 정기연주회	카이예술단
31.(토)	트리니티 발레학원 발표회	트리니티 발레학원
09. 07.(토)	은울탈춤 진짜 마당을 만나다	은울탈춤보존회
21.(토)	아름다운 성악반 연주회	계양문화센터 아름다운 성악반
10. 12.(토)	제 17회 창작시노래공연	문화예술소통연구소
11. 02.(토)	숲속 성사아모 향상음악회	숲속의 성사아모
06.(수)~07.(목)	즉흥연극 <나의 이야기 극장>	(사)행복극장
16.(토)	사물놀이명품화프로젝트수도권투어<세 개의 사물>	여성타악연희그룹 도리
30.(토)	2109 송년회 및 결과발표회	풍물패 더눔
12. 10.(화)	'신고해도 되나요' 낭독극 및 작가와의 만남	갈월초등학교 3학년
12.(목)	연극&영상교육프로그램 결과발표회 리허설	부평문화원
19.(목)	연극&영상교육프로그램 결과발표회	부평문화원
23.(월)	시니어극단 은빛여울 공연 <세 남매의 봄> 리허설	부평문화원
24.(화)	시니어극단 은빛여울 공연 <세 남매의 봄>	부평문화원

03. 2019년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 사업

공연

18회 공연 / 24팀 참여

03. 13.(수)	락드림, 경인고속도로 굴포천	07. 10.(수)	하트리오, 자리 굴포천
27.(수)	이상한 술집, 씨콤마 첼로 부평구청	24.(수)	장한샘 부평구청
04. 10.(수)	아란, 마임오카리나 굴포천	10. 19.(토)	어쿠스티커 부평구청
24.(수)	국제문화예술진흥회 부평구청	26.(토)	샌드재즈듀오 굴포천
05. 08.(수)	드림&조이 우쿠렐레 굴포천	11. 02.(토)	어썸가야 부평구청
22.(수)	마롱, 김주희 부평구청	09.(토)	히미츠 굴포천
		16.(토)	샌드재즈듀오 부평구청
06. 12.(수)	싱어송라이터 김재훈, 김홍석듀오 굴포천	23.(토)	어썸가야 굴포천
26.(수)	뮤지컬 러브러브 부평구청	30.(토)	장한샘 부평구청
		12. 07.(토)	클라우드블록 굴포천

하반기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 공연 기획자 후기

CG.ent 박지영 대표

부평구청역 상설무대의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몇몇 팀이 공연을 한 지도 벌써 정해진 공연 횟수의 절반, 5회에 이른다. 실망과 허무함 속에서도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청중이 모여들 거야. 이런 배짱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고백하자면 사실 공연 시작 전까지는 그래도 일말의 설렘과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생각이었다. 승객이나 행인 모두 종종 걸음을 칠 뿐 누구 하나 멈춰 서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노랫소리는 차가운 지하철역 타일 벽에 부딪쳐 메아리 없이 부숴 질 뿐이었다.

여기서 하는 버스킹 공연이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공연을 이어나갔지만 지나쳐버리는 승객, 행인이 더 많다. 솔직히 실망감과 조급함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이것이 지하철역 공연의 한계인가? 이것이 우리 인천의 문화 현주소인가? 이런 회의도 들었다.

그러면서 한편 스스로 이런 위안도 했다. 사람들은 바쁘게 혹은 무관심하게 지나쳐 가지만 그들의 두 귀는 여기 공연 음악을 들으며 가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그 음악에 익숙해질 거야. 사람들이 다가와 우리 공연자들 앞에 서지 않아도 우리는 지나치는 그들을 위해 언제까지라도 공연을

계속하면서 음악을 들려주는 거야. 우리가 실망하여 공연을 중단한다면, 여기를 지나던 승객들이나 행인들은 오히려 허전해 할지 모른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문화는 진정 사람 마음에 은근히, 서서히 배어들어야 하는 것이지 급작스럽게, 떠들썩하게 모아 놓고 잔치하듯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 공연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다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청중 없는 음악 공연의 중요성과 의미를 중얼거리려 보는 것이다. “무심결에 매일 듣는 음악소리가 곧 우리 부평 사람들에게 자양분이 되어 그들 가슴에 문화의 씨앗으로 싹트는 거야!”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 대관_공연

68회 공연 / 18팀 참여

02.08.(금) 12:00	7080 작은 앙상블 부평구청	19.(금) 19:00	한화 색소폰 클럽 동호회 굴포천
03.09.(토) 15:00	제이앤색소폰클럽 굴포천	27.(토) 16:00	트럼펫콰이어 굴포천
14.(목) 18:00	어울림통기타 부평구청	08.07.(수) 18:00	윤호통기타 부평구청
29.(금) 19:00	한화 색소폰 클럽 동호회 굴포천	10.(토) 15:00	제이앤색소폰클럽 굴포천
04.13.(토) 15:00	제이앤색소폰클럽 굴포천	13.(화) 18:00	윤호통기타 굴포천
27.(토) 16:00	트럼펫콰이어 굴포천	17.(토) 17:00	은방울 노래 봉사단 굴포천
05.11.(토) 15:00	제이앤색소폰클럽 굴포천	22.(목) 18:30	윤호통기타 굴포천
18.(토) 14:30	부평필하모닉청소년 오케스트라 굴포천	23.(금) 19:00	한화 색소폰 클럽 동호회 굴포천
25.(토) 16:00	트럼펫콰이어 굴포천	26.(월) 16:00	친구악단 굴포천
06.13.(목) 15:00	어울림통기타 굴포천	29.(목) 18:30	통기타 공연 부평구청
15.(토) 15:00	제이앤색소폰클럽 굴포천	18:30	윤호통기타 굴포천
29.(토) 16:00	트럼펫콰이어 굴포천	31.(토) 17:00	은방울 노래 봉사단 굴포천
07.06.(토) 15:00	제이앤색소폰클럽 굴포천	09.01.(일) 17:00	아임클라 부평구청
13.(토) 11:00	꿈마을 어린이 청소년 예술단 굴포천	04.(수) 18:00	윤호통기타 굴포천
14.(일) 15:00	부광오케스트라 부평구청	07.(토) 15:00	제이앤색소폰클럽 굴포천
		08.(일) 17:00	아임클라 부평구청
		10.(수) 17:30	부평구축제위원회 굴포천
		11.(수) 18:00	윤호통기타 굴포천
		18.(수) 18:00	윤호통기타 부평구청
		20.(금) 19:00	한화 색소폰 클럽 동호회 굴포천
		22.(일) 17:00	아임클라 부평구청
		25.(수) 18:00	윤호통기타 부평구청

10.02.(수) 18:00	윤호통기타 굴포천	11.22.(금) 19:00	한화 색소폰 클럽 동호회 굴포천
06.(일) 15:00	친구악단 굴포천	27.(수) 18:00	윤호통기타 부평구청
11.(금) 19:00	ETC 굴포천	29.(금) 19:30	ETC 굴포천
12.(토) 15:00	제이앤색소폰클럽 굴포천	30.(토) 19:30	ETC 굴포천
17:00	ETC 부평구청	12.04.(수) 18:00	윤호통기타 굴포천
17.(목) 18:00	윤호통기타 굴포천	06.(금) 19:30	ETC 굴포천
18.(금) 19:00	한화 색소폰 클럽 동호회 굴포천	08.(일) 16:00	ETC 굴포천
19.(토) 18:00	ETC 굴포천	11.(수) 18:00	윤호통기타 부평구청
23.(수) 18:00	윤호통기타 부평구청	15.(일) 16:00	ETC 굴포천
25.(금) 19:30	ETC 굴포천	18.(수) 18:00	윤호통기타 굴포천
26.(토) 18:00	인바코(인천에서 잘되길 바래 코드) 부평구청	20.(금) 19:00	한화 색소폰 클럽 동호회 굴포천
27.(일) 16:00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굴포천	21.(토) 18:00	노을사랑 부평구청
30.(수) 18:00	윤호통기타 부평구청	22.(일) 16:00	ETC 굴포천
11.06.(수) 18:00	윤호통기타 굴포천	25.(수) 16:00	ETC 굴포천
15.(금) 19:30	ETC 굴포천	28.(토) 19:30	ETC 굴포천
16.(토) 19:30	ETC 굴포천	29.(일) 16:00	ETC 굴포천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 대관_전시

8회 전시 / 8팀 참여

03.01.(금) - 31.(일)	박경원	10.01.(화) - 30.(수)	멀티포토 사진클럽
04.15.(월) - 30.(화)	배정민	11.01.(금) - 15.(금)	봇돌
07.17.(수) - 08.17.(토)	인천노인종합 문화회관 서각교실	11.16.(일) - 30.(일)	물그리다
09.08.(일) - 29.(일)	김상숙	12.01.(일) - 29.(일)	한국 GM사진 동호회



3.

부평문화사랑방
주변 즐기기

01. 주민 특성별 투어 코스 제안

아이와 함께하는 1일 놀아주기 코스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장제로 267

- 관람시간 3월~10월 9시~18시
11월~2월 9시~17시
- 관람료 무료 휴관일 매주 월, 설·추석 당일

인천 유일의 기후변화체험관.
지구온난화 현상과 각종 환경문제를 전문 전시해설과 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공간.

portal.icbp.go.kr/bpgncce (032)509-3900 #생태체험 #아기자기

부평안전체험관

굴포로 110 민방위 교육관

- 관람시간 평일 10시~18시
- 특별 야간 프로그램 목·금 19시~21시
- 휴관일 매주 월, 공휴일

유사시 주민들의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 체험공간.

safe.icbp.go.kr (032)509-3940 #예약필수 #잠깐의 자유

카페, 라곰

길주로 585번길 8-8

- 메뉴 아메리카노 3,500원

캔들공방으로 친절한 선생님이 상주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공예 체험 가능.
부모들이 커피 한 잔 하며 아이들을 지켜보기 좋음.

010-9076-9508 #아이들은_캔들 #엄마아빠는_커피

갈산밀알도서관

주부토로 173

- 운영시간 9시 30분~18시 30분
- 휴무일 주말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8천 여 권의 책 보유.
다양한 도서교육 프로그램 제공.

(032)509-8627 #책만_읽으면_심심하니까 #눈이_아닌_몸으로_읽어볼까

부평문화사랑방

주부토로 173 3층

- 휴관일 매주 일, 공휴일

매월 3회 이상의 가족대상 공연과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제공.

(032)505-5995 #많이_놀고 #일찍_자라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까지 더해진 알찬 하루를 제공하는 코스를 추천한다. '부평안전체험관'과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환경교육과 재난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부평안전 체험관' 예약제로 운영되는 교육을 제공하여 하므로 부모들은 잠깐의 휴식을 가질 수 있다.

'카페, 라곰'은 캔들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다. 통유리로 된 공방에 친절하 강사가 안내해주므로 아이가 혼자 캔들공예를 체험할 수도 있다. 갈산2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공공 작은도서관 '갈산밀알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3층 부평문화사랑방에 준비된 공연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

부평문화사랑방의 무료 문화예술교육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신청하였다면, 오전의 꿈다락 일정을 마치고 거꾸로 코스를 돌아봐도 좋다.

아이와 놀아주기 코스의 장소들은 월별, 연도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과 체험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여러 번 방문한다면 교외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항상 저렴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취준생 데이트 코스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

신트리로 21

- 운영시간 열람실 6시~11시 / 종합자료실 9시~22시
- 휴관일 공휴일

도서 7만 7549권 소장, 열람실 운영

lib.ice.go.kr/bukgu/index.do #선착순자리 #리모델링_깔끔

엄마수제돈까스

신트리로 22번길 6

- 메뉴 돈까스 5,000원~7,000원 / 덮밥류 5,000~6,000원
*1,000원 추가시 쫄면 or 떡볶이

천원추가로 쫄면과 떡볶기 함께 즐기기 추천.치즈 돈까스는 양이 적으나 두 개를 먹어도 되는 착한 가격!

#신발을_튀겨도_맛있다 #그래서_돈까스는_맛있다

공원

- 굴포공원→반월 놀이공원 약 800m 도보 12분 소요
- 굴포공원→박물관 공원 약 1.9km 도보 29분 소요

반월 놀이공원 까지 가면 근접한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방문은 덤!

#산책의_모미 #굴포천

ART, 메트로 MIX

길주로 623 부평구청역, 굴포천역 상설무대

- 월3회 저녁

지역문화예술 단체, 활동가들의 공연과 전시 무료관람.공연 내용은 사전에 부평구문화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bpcf.or.kr #어쩌다공연전시 #무료버스킹

취준생 데이트 코스는 시간과 경제사정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장소로 선별하였다.
주머니가 얇은 취업준비생들이 가벼운 문화생활을 통해 학업과 연애, 교우관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코스를 추천한다.

수만 권의 책을 보유한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은 부평 최대의 도서관이다.
학생, 취업준비생들이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열람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엄마수제돈까스'는 북구도서관 앞에 있는 작은 식당이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천원 추가로 쫄면과 떡볶이를 더해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

북구도서관 건너편은 굴포천의 시작점이다.
'굴포공원'부터 굴포천 끝까지는 도보로 약 40분 가량 소요된다. 봄에는 벚꽃길로 유명하고 가을에는 낙엽길로 유명하다. 산책길 중간에 부평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과 부평역사박물관 등이 있어 날씨의 영향을 받는 날에는 쉬어가도 좋다.

'ART, 메트로 MIX' 사업으로 매월 3회 가량 부평구청역 또는 굴포천역 내 상설무대에서 아마추어예술가와 전문 아티스트가 무료로 공연을 선보인다. 매월 3회 가량의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고, 미리 부평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날짜와 공연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굴포천역 작은갤러리에는 매일 대관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전시가 준비되어 있다.

내 동년배들 다 여기 다닌다! 꽃청춘 코스

인천여성가족재단

길주로 539

● 휴무일 주말, 공휴일

여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부터 저렴한 취미, 운동, 자격증을 위한 교육수강 가능.
1층에 전시와 행사 수시 진행.

ifwf.or.kr #자격증반 #취미반

북새통떡볶이

갈월서로 6 대우빌딩

● 운영시간 매일 10시~22시
● 메뉴 떡볶이 1인분 5,000~8,500원 / 사리 1,000~3,000원
세트 14,000~ 21,500원

즉석세트+갯잎+볶음밥이 최고 레시피.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먹기 좋은 메뉴 다수.

(032)525-1888 #더치페이 #사리추가

가족공방 라온

부평대로 126-1 2층

요즘 핫한 공방. 가족공예 원데이 클래스부터 정규반까지 등록 가능.

blog.naver.com/raon_atelier raonatelier.modoo.at (032)518-8669
#가족지갑 #명품저리가라

락캠프

길주로 547 부성빌딩 B1

● 운영시간 연중무휴 19시~1시
● 메뉴 음료와 주류 5,000원~ / 안주 식사류 20,000~

토요일 8시부터 라이브공연 진행.
항상 새로운 팀이 공연대기중. 분위기는 레트로하지만 노래는 세련.

페북/rockcamp (032)518-1245 #푸쳐한집 #앉아있으면_반칙

레트로 유행에 따라 옛 감성을 느끼며 부모님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추천한다. 부평구청 앞에 위치한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여성들이 수영 같은 생활체육부터 자격증을 준비하는 전문과정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정규반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1층에서 상시로 열리는 전시와 작은 플리마켓을 구경할 수 있다.

'북새통떡볶이'는 여성가족재단 바로 앞에 있는 즉석 떡볶이집이다.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식사하기 좋은 식당이며, 1인 분담으로 나눠 계산하기 좋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정규반 등록이 부담스럽다면 일일클래스를 추천한다. '라온'은 가족공예 공방으로 원데이 클래스부터 정규반까지 체계적으로 되어있는 체험공방이다. 최근 공방이 많이 생긴 부평구청 정문 앞 골목에 위치해있다.

마지막으로 '락캠프'는 20여 년간 부평에 자리 잡고 있는 라이브공연 카페이다. 매주 토요일 8시부터 현재 활동하는 인디밴드들의 다양한 라이브연주를 들을 수 있다.

부모님과 세대 공감을 이루고 싶은 날에 코스를 따라 짧은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

주말에 놀기 좋은 커플코스

봄날같은오븐

주부토로 81번길 50

마카롱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베이킹숍.
쿠키 디저트 등 다양한 원데이클래스를 골라 들을 수 있음.

봄날같은오븐.com (070)4113-1454 #선물용마카롱 #베이킹체험

키친 심플

부평대로 165번길 10

- 운영시간 평일 11시~22시 / 토요일 12시~10시
- 브레이크타임 매일 15시~17시

아점으로 적합한 파스타와 피자 판매점. 크림리조또와 함께 와인 한 잔 추천.
소화시킬 겸 다음 코스까지 걸어갈 수 있는 괜찮은 거리.

(032)511-5607 #데이트코스 #리조또맛집

유어데일리

길주로 585번길 7-6

- 운영시간 토요일 오픈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품 겸 소품샵.
심플하고 귀여운 분위기를 즐기기에 좋음.

인스타@yourdaily.kr 010-4919-3374 #귀움귀움소품 #다꾸족환영

연꽃빌라

길주로 547번길 8-12

- 운영시간 평일 12시~23시 / 일요일 12시~20시
- 휴무일 목요일

커피와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독립출판서점.
캘리그라피 수업도 진행중.

인스타@kimbiub (032)221-7933 #책과커피 #동네독립서점

화창한 주말에 회사 주변을 벗어나 낯선 곳으로 떠나는 데이트를 계획한 적이 있을 것이다. 바람을 쐬러 멀리 새로운 곳을 찾아가도 좋지만 가끔은 가까운 곳에서 이색적인 데이트를 즐기고 싶을 것이다.

변화가까지 멀리 나가야하는 수고로움은 떨쳐버리고, 가까운 '봄날같은오븐'에서 연인과 함께 알콩달콩 대화하며 베이킹을 하는 데이트를 즐겨보자. 원데이클래스를 즐기느라 배가 고프다면 맛있는 파스타와 피자를 파는 '키친 심플'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식사를 마치고 둘러보기 좋은 공간이 있다. 청리단길에 위치한 '유어데일리'이다. 아기자기하면서 심플한 소품들을 구경해보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 해진다. 마지막으로 카페거리 청리단길에 작은 독립서점을 겸하고 있는 '연꽃빌라'에서 책과 커피를 즐기며 데이트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열정적인 직장인을 위한 자기개발 코스

우주방앗간

길주로 585번길 7-17

자그마한 동네화실. 원데이클래스 및 취미미술 정규클래스 운영 중.
데생부터 일러스트까지 개인이 원하는 클래스 신청 가능

카카오톡/Yunmi30332 인스타@우주방앗간 #못그려도괜찮아 #직장인화실

사각공간

장제로 249번길 16 1층

● 운영시간 매일 10시~21시
● 휴무일 일요일

마음을 다독여주는 인문독서모임이 인기 만점.

블로그/nemo-book (032)215-0423 #동네독립서점 #책냄새물씬

힘들었던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바로 가기 아쉬운 당신,
멀리 가지 말고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두 가지의 코스가 있다.

열정적인 직장인을 위한 자기 개발 코스가 있다. 평소 가볍게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면 '우주방앗간'을 추천한다. 연필화, 수채화 등 무엇이든 선택해서 그림을 배울 수 있다. '사각공간'은 동네에 위치한 독립 서점이다. 사장님의 신념과 사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마음의 양식을 보고 갈 수 있는 이곳을 퇴근길에 잠깐 머물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주기적으로 마음의 풍족한 양식이 되는 소수정예 인문독서모임이 진행된다.

피곤한 직장인을 위한 짧은 힐링 코스

청리술집

주부토로 146번길 39 1층 102호

● 운영시간 매일 17시~02시
● 휴무일 화요일

퇴근 후, 지친 몸을 끌고 조용히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찾는 동네 술집.
테이블과 바가 있어서 혼술가능. 예쁜 동네 술집

(032)528-0327 #동네감성 #퇴근후힐링

더큐브

길주로 565번길 7-13

● 운영시간 매일 20시~03시
● 휴무일 일요일

만화같이 작은 바를 사장님 한 명이 운영중.
메뉴판 없음. 추천 요청시 오더메이드 제공(13,000)
안주도 없어서 외부음식 유입 가능. 바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될 지도.

010-9252-8025 #심야술집 #집에가기아쉬워

피곤한 직장인을 위한 짧은 힐링 코스는 피곤함을 털어낼 수 있는 코스이다. 할 일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혼자서든 여럿이서든 동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담백하게 즐기기 좋은 바 테이블을 갖춘 두 곳 '청리술집'과 '더큐브'를 소개한다.

서울까지 갈 필요 없다! 빵덕후를 위한 베이커리 코스

실리제롬

길주로 623 대덕리치아노

- 운영시간 매일 11시~21시
- 휴무일 월요일

덕후들에게 소문난 삼산동 빵맛집.
담백한 빵 위주로 판매.
아메리카노와 조합이 좋은 촉촉한 스콘과 버터프레즐이 일품.
일리카피 판매

(032)363-2505 #스콘맛집 #이제월요일오픈

아크커피

주부토로 146번길 8-8

- 운영시간 매일 12시~22시
- 휴무일 매주 토, 일

비건 카페 겸 베이커리.
건강함을 추구하는 디저트와 음료로 운영.
채식빵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

인스타@arkcoffee_vegan 010-9697-3039 #동네비건카페 #지갑지켜주는커피값

플뤼

길주남로 13

- 운영시간 매일 11시~21시

스콘맛집 카페. 모든 디저트는 수제로 만든다.
4종류 이상의 스콘과 디저트가 한가득!

인스타@yeonwoldang 010-8012-7604 #좌식카페 #옛느낌물씬

연월당

신평로 22번길 15

- 운영시간 11시~20시
- 휴무일 월요일

따스한 조명이 예쁜 자그마한 카페.
수제 디저트 종류가 많지 않아 다 먹어볼 수 있지만 그 중에 마들렌 강력 추천.

인스타 @cafe.pluie 010-9016-4518 #수제구움과자 #음악선곡센스

콩뜨빵

주부토로 81번길 50 래미안부평

- 운영시간 매일 8시~22시(변동)

수제 동네빵집. 시즌별로 메뉴가 달라짐. 스콘이 큼지막해서 하나 먹어도 배부름.
기본빵이 맛있어서 저녁에 식빵을 쓸어간다는 소문이 있음.

(032)361-9594 #동네구석빵집 #클래식빵집

맛있는 빵집은 동네에도 있다. 동네빵집투어를 원하는 당신을 위한 5곳의 공간을 소개한다.

초록창에 삼산동 빵집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실리제롬'은 모든 빵맛이 일품인 맛있는 가게이다. 굴포천역 바로 옆 롯데마트 1층에 위치해서 찾기도 쉽고, 함께 일리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삼산동에서 큰 길을 따라 내려오면 짙은 초록지붕의 '아크커피'가 보인다. 흔치 않은 비건카페로 건강에 좋고, 소화도 잘 되는 맛있는 비건류 베이커리 준비되어 있다.

청리단길을 건너 도서관쪽으로 걷다보면 카페 '연월당'과 '플뤼'를 만날 수 있다. '연월당'은 푸근한 느낌의 좌식인테리어가, '플뤼'는 망원동 스타일의 심플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그 옆 래미안 아파트 단지의 숨은 빵집인 '콩뜨빵'에는 식빵이 가장 유명하다. 식빵 한 봉지 사서 걸으며 빵을 뜯는 것도 알찬 빵코스 마무리로 적절하다.

02. 주변 지도

아이와 함께하는
1일 놀아주기 코스

- A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 B 부평안전체험관
- C 카페, 라곰
- D 갈산밀알도서관
- E 부평문화사랑방

취준생
데이트 코스

- A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
- B 엄마수제돈까스
- C 굴포공원
- D ART, 메트로 MIX

내 동년배들
다 여기 다닌다!
꽃청춘 코스

- A 인천여성가족재단
- B 북새통떡볶이
- C 가족공방 라온
- D 락캠프

주말에
놀이 좋은
커플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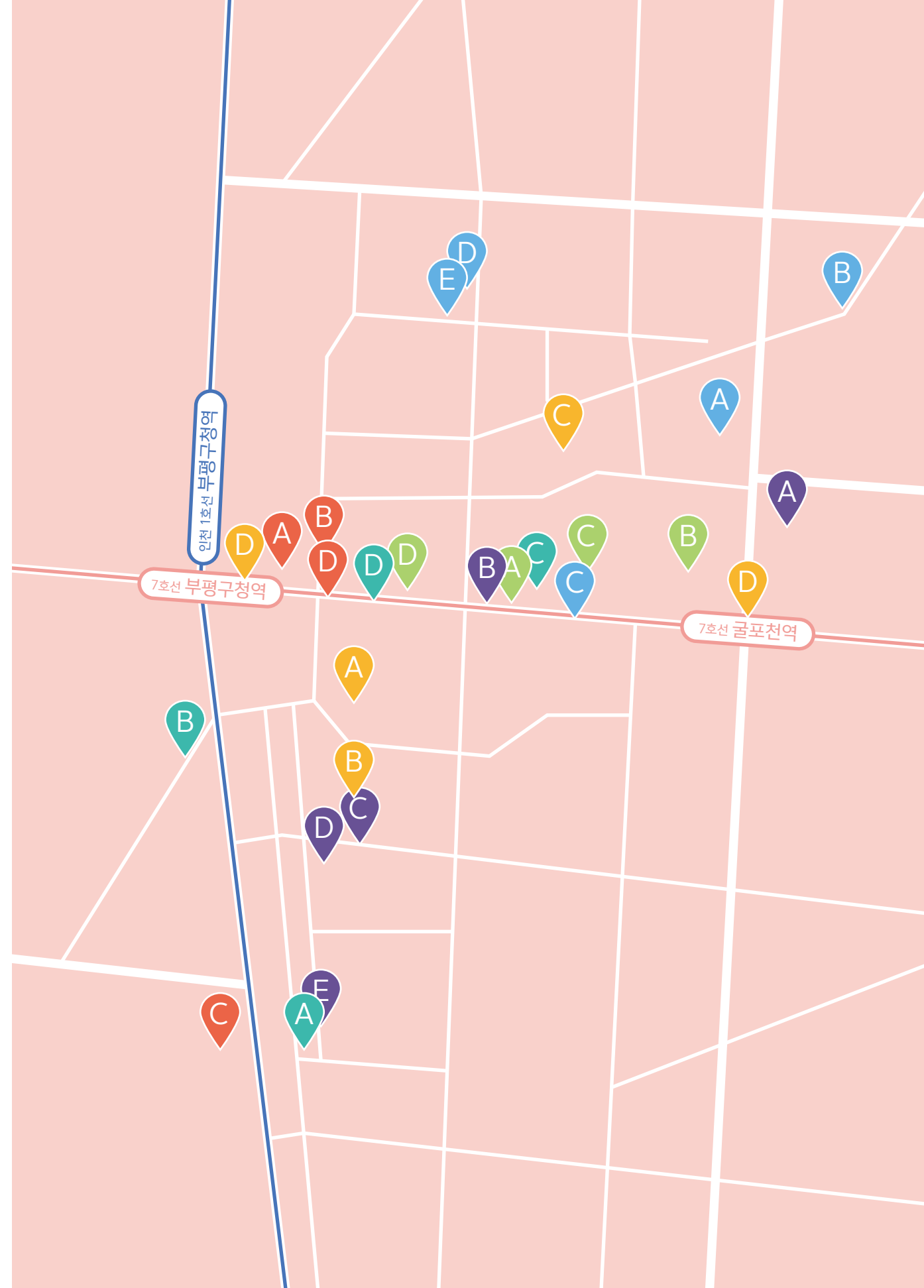
- A 봄날같은 오븐
- B 키친 심플
- C 유어데일리
- D 연꽃빌라

열정적인 직장인을 위한
자기개발 코스 VS
피곤한 직장인을 위한
짧은 힐링 코스

- A 우주방앗간
- B 사각공간
- C 청리술집
- D 더큐브

서울까지 갈 필요 없다!
빵덕후를 위한
베이커리 코스

- A 실리제룸
- B 아크커피
- C 플뤼
- D 연월당
- E 콩뜨빵



4.

언론보도

2019. 1. 16. 도민일보, 경기신문, 인천일보, 경인일보, 국민일보, 중부일보, 기호일보 등 7건

부평문화사랑방 상설공연 작품 공모

- 25일까지... 최대 500만원 지원

인천시 부평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오는 25일까지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를 통해 2019 상설공연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부평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우수 공연프로그램 발굴과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부평구문화사랑방에서 오는 3월부터 12월 까지 상설 공연할 작품이다.

공모 분야는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극(마임)과 전통(정통, 퓨전), 음악(클래식, 재즈, 밴드, 인디음악), 다원복합예술(마술, 무용) 등으로 총 13여개 작품이 선정되며, 공연의 규모,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제출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공모신청서, 무대계획서, 공연사진, 공연영상 등이며 이메일(looioo321@naver.com)을 통해서만 접수받는다.(문의: 032-500-2082)

2019. 7. 4. 뉴스인사이드 1건

[공연정보]

놀부는 심술대장 2019년 7월 4일까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공연

2019년 7월 4일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복합 <놀부는 심술대장> 공연이 열린다. 공연시간은 50분이고 목요일(19:30)에 공연되며, 관람 연령은 전체관람가이다. 제작사는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이다. <놀부는 심술대장>은 (후략)

2019. 7. 21. 경기도민일보, 경인투데이뉴스, 내외신문, 서울뉴스통신 등 4건

부평구문화재단, 여름방학 프로그램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모집

- 2014년부터 6년에 걸쳐 꾸준히 업그레이드되는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 연극놀이를 매개로 성취감과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문화예술교육
- 다양한 역할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창의력 자극하기

부평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영훈)은 2014년부터 매년 방학기간마다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부평문화사랑방 <여름방학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여름방학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은 2개 기수, 4개 분반으로 운영된다. 1기는 8월 1일(목)부터 7일(수)까지 2기는 8일(목)부터 14일(수)까지 평일 5회차씩 진행된다. 1~2학년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3~4학년반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나누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극놀이 방식으로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며 분반별 키워드인 그림, 박물관, 환경, 시간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야기 속 다양한 상황연극과 목표에 맞는 체험 방식을 통해 참여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함께하는 친구간의 연대감을 기를 수 있다.

4개 분반별 주제는 △미술의 기본요소인 선과 색, 그림을 소재로 연극적인 상황 체험하기, △기억의 장소인 박물관의 의미를 알고, 연극 역할과 상황에 맞게 행동하기, △연극으로 작은 실천적 행동에서 시작되는 환경 보호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미카엘 엔데 <모모>를 통해 시간의 의미와 행복한 삶에 대해 생각하기 이다.

참가비는 5만원이고, 신청은 7월 16일 화요일부터 가능하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bpcf.or.kr)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문의 : 부평구문화재단 사랑방운영팀 032-505-5950)

2019. 7. 16. 도민일보, 내일신문, 내외신문, 시대일보 등 4건

부평구문화재단, 나도 미디어 아티스트 참여자 모집

아티스트의 작품세계와 창작방식을 배워보는 초등대상 창의 예술교육

- 미디어아트를 쉽게 접하고, 창의적인 표현력과 아이디어 구상력을 배우는 기회
- 기술과 예술이 결합되는 창작과정을 탐색하고 자신의 작품 제작까지

오는 8월부터 주민 밀착 복합문화공간 부평문화사랑방에서 미디어아트 문화예술교육이 열린다.

부평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영훈)은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창의 예술교육 시리즈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나도 미디어 아티스트!>를 8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초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6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생소하게 여겼던 미디어아트를 가족과 함께 접해보면서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이다.

부평문화사랑방에서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창의 예술교육 시리즈는 참가자들이 아티스트의 창작과정과 표현방법을 익히고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도 미디어 아티스트!>에는 윤제호 아티스트와 예술공학창작소 Craker(크래커)가 강사로 나선다. 윤제호 아티스트는 전자음악, 사운드 아트, 오디오 비주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공학창작소 Craker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룹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주변의 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익숙한 소리가 빛과 그림자와 어우러져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핸드폰, 구리철사, 자석과 같이 주변의 흔한 재료부터 전기회로 같은 공학 재료까지 다양하게 활용한다. 부모와 자녀가 팀을 이루어 빛, 소리, 그림자, 영상을 토대로 증강된 마법공간을 만들어보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23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모든 재료를 포함하여 10만원이다. 신청은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bpcf.or.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문화재단 사랑방운영팀 032-505-5950에 문의하면 된다.

2019. 7. 30. 뉴스인사이드 1건

[공연정보] 무엇이 될까 2019년 7월 30일까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공연

2019년 7월 30일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연극 <무엇이 될까> 공연이 열린다. 공연시간은 50분이고 화요일(19:30)에 공연되며, 관람 연령은 24개월 이상이다. 제작사는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이다. 출연진은 한준휘, 홍성표, 이예지, 김초원, 신지은, 최원석이다. <무엇이 될까>는 (후략)

2019. 8. 22. 뉴스인사이드 1건

[공연정보] 다시 읽는 동화, 낭독 연극 시리즈Ⅱ,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인천 2019년 8월 22일까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공연

2019년 8월 22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연극 <다시 읽는 동화, 낭독 연극 시리즈Ⅱ,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인천]> 공연이 열린다. 공연시간은 50분이고 목요일(19:30)에 공연되며, 관람 연령은 24개월 이상이다. 제작사는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이다. 출연진은 이동건, 홍지인, 이진철, 김희정, 신소영, 배현정이다. <다시 읽는 동화, 낭독 연극 시리즈Ⅱ,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인천]>는 (후략)

2019. 8. 28. 경인매일, 인천일보, 경인투데이뉴스, 서울일보, 내일신문, 아시아뉴스통신, 내외신문 등 7건

부평문화사랑방, 초등학생 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

- 1~2학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오늘은 도깨비랑 놀기 좋은 날>
- 3~5학년, 사회적 자아 존중 향상을 돕는 '발도르프 예술교육' <느린 연극 교실>

(재)부평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영훈)은 오는 9월,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두 개의 맞춤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선정된 <오늘은 도깨비랑 놀기 좋은 날>과 사회적 자아 존중 향상을 돕는 발도르프 예술교육 <느린 연극 교실>이다.

인천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깨비 놀기 좋은 날>은 우리나라 민간 전설에서 등장하는 도깨비를 중심으로 전래놀이, 악기연주, 전통문화, 감정표현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7월까지 운영되었으며, 9월부터 시작하는 3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총 8회 차 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며, 취약계층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연극, 국악, 판소리 등에 특화된 국악기반 통합예술 교육단체 '소리랑' 강사진이 함께한다. '소리랑'은 국악뮤지컬 제작과 유아대상 놀이예술 체험프로그램 연구하는 예술단체로서 참여자들에게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고 전래놀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직접 도깨비 노래를 개사하고 녹음한 뒤, 음원으로 제작하여 멜론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9월 7일부터 11월 9일, 매주 토요일 진행

올해로 2년째를 맞는 <느린 연극 교실>은 예술을 접목한 학습으로 내면에 잠재된 힘과 열정, 지혜를 스스로 발견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미있게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정이 발달하는 단계인 3~5학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이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가 가미된 예술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극을 비롯하여 시, 노래, 이야기, 습식수채화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응하는 단계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부모가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발달단계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발도르프 교육관 부모강의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 9월 4일 ~ 10월 23일, 매주 수요일 진행

수강신청은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bpcf.or.kr)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문화재단 사랑방운영팀에 전화(032-505-5950)로 문의하면 된다. (후략)

2019. 8. 30. 뉴스인사이드 1건

[공연정보] 당신은 선물입니다 : 베이스 함석헌의 가족 콘서트 2019년 8월 30일까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공연

2019년 8월 30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클래식 <당신은 선물입니다: 베이스 함석헌의 가족 콘서트> 공연이 열린다. 공연시간은 1시간이고 금요일(19:30)에 공연되며, 관람 연령은 만 5세 이상이다. 제작사는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이다. 출연진은 함석헌, 김은영, 김태영, 손미래, 조요한이다. <당신은 선물입니다: 베이스 함석헌의 가족 콘서트>는 (후략)

2019. 9. 6. 뉴스인사이드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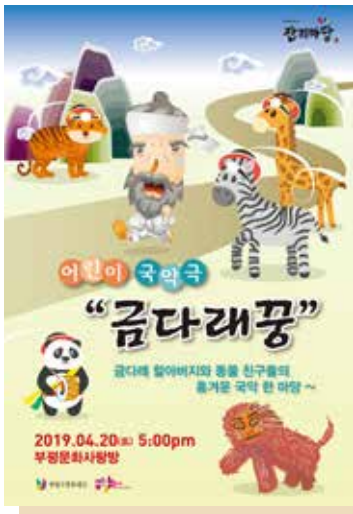
[공연정보]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2019년 9월 6일까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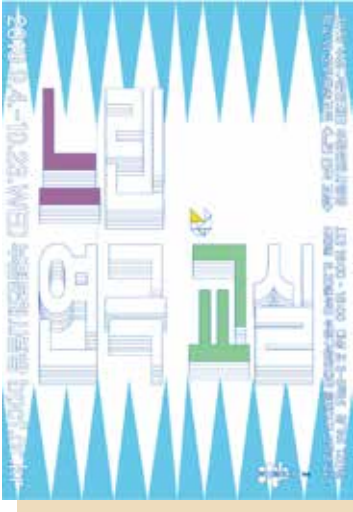
2019년 9월 6일부터 2019년 9월 6일까지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연극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공연이 열린다. 공연시간은 50분이고 금요일(19:30)에 공연되며, 관람 연령은 전체 관람가이다.

제작사는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이다. 출연진은 박영희이다. 제작진은 박영희, 유한수, 김용운 등이다.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는 (후략)

5.

포스터 이미지





2019 부평문화사랑방

아카이브 북

발행인 이영훈
발행월 2019. 12.
발행처 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73 3F 부평문화사랑방
032. 505. 5950 / www.bpcf.or.kr

총괄 고동희 문화사업본부 본부장
책임편집 노수진 문화사업본부 사랑방운영팀 팀장
저술참여 (주변 즐기기) 고다윤, 이선빈
사랑방운영팀 이혜진, 강원도
실무진
디자인제작 아이드디자인 강민정